

〈OECD회원국 기준〉

韓, 국가부채 증가 속도 2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한경연,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었다. 특히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부채가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843조 2000억 원 △기업 2021조 3000억 원이다.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이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 평균(265.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총부채 비율의 빠른 증가 속도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 포인트(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또한,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상위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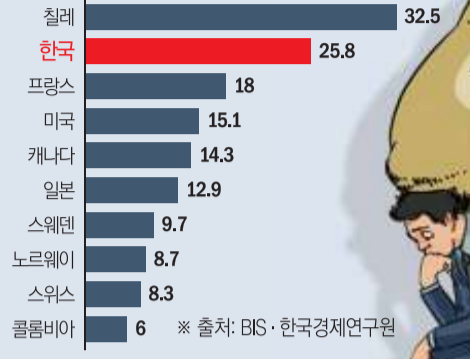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작년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4분기보다 15조3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상승은 경기침체로 최근 영업잉여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우리나라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과 OECD 순위 (2017~2020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P) 및 OECD(28개국) 순위		
	2017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17-2019년 증가폭(%P) 순위	2017년-2020년 1분기 증가폭(%P) 순위	
비금융부문	217.9	236.2	243.7	18.3	25.8	2
민간비금융	182	197	201	15	19	2
- 기업	92.6	101.8	105.1	9.2	12.5	3
- 가계	89.4	95.2	95.9	5.8	6.5	1
정부	35.9	39.2	42.7	3.3	6.8	4

GDP 대비 총부채(비금융) 비율 증가폭 (단위: %P, 2017~2020년 1분기 기준)



등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가 때문이며, 정부부채비율 상승은 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민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 부채 감축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성장력을 높여 경제 주체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정부 부채 디레버리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총량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 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규제개혁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간 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늘부터 매일 학교 가는 ‘초1’ 학부모 “넌뛰는 확진자 수 불안”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교사, 분반수업 ‘방역 구멍’ 우려 “학급당 20명 이내로 감축해야”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3분의 2로 완화돼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난다. 교육부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1학년을 매일 등교시킨다.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학부모 ‘불안’** = 추석 연휴 이후 오락가락하는 확진자 수와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까지 터져 나오면서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초1 자녀를 둔 이성애(43·가명) 씨는 “매일 확진자 발생 재난문자와 동선 역학 조사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조금 감소했다고 한 것 같으면 다음 날 또 넌뛰기처럼 세 자릿수 가까이 나오니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겁난다”고 토로했다.

과밀학급 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매일 등교하도록 했지만 과대 학교나 과밀학급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밀집도를 강제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의 초3 자녀를 둔 정연희(48·가명) 씨는 “한 반에 33명씩 10반이라 과밀학급인데 학년별 전원등교 조사를

했다”면서 “3학년은 주 3회이고 분반인 줄 알았는데 등교를 하면 막상 3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교사들 “학급 내 밀집도 낮춰야”** =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전·오후반 분반 수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방역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26일 진행한 초1·중1 매일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초1 담임교사 가운데 65.9%, 중1 담임교사 가운데 67.2%가 반대했다.

박호철 서울시교육청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교실 방역과 효율적인 원격·대면수업,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역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고 일상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로 감축해야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 지원 장기대책 필요”** = 감염병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에 지원 키로 한 방역 인력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는 “학교는 애초 목적이 교육이고 보건의 상대적으론 인력이나 인프라가 약하다”며 “코로나19 싸움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방역 인력이 지칠 수가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들은 방심하지 말고 방역 당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력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방향 맞지만 사회적 합의 중요... “지역 의원부터 도입을”

코로나가 바꾼 ‘글로벌 원격의료’

선진국, 보험수가 동등 허용 ‘원격’ 확대 정부, 고위험군 대상 전화상담 일시도입 시행 결과 우려했던 ‘상급기관 쏠림’ 없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 각 영역의 새로운 변화를 앞당겼다.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원격의료’를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일시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국내 원격의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상태에서 찬반 논리가 팽팽하다. 해외에선 원격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여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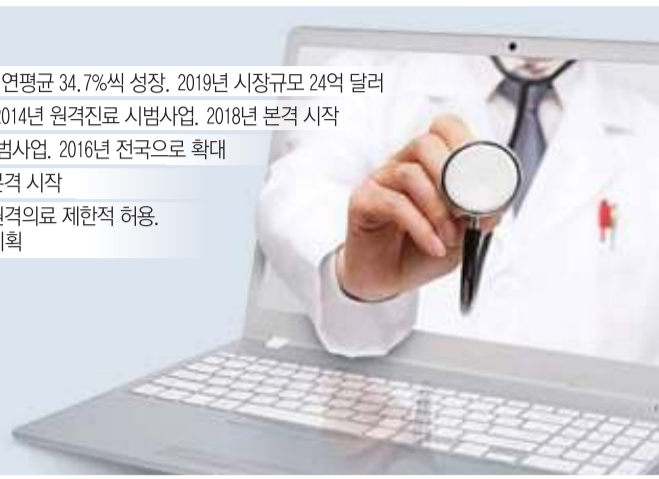
18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 선진국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빚장을 빠른 속도로 풀고 있다. 이웃 일본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5년 도입된 일본의 원격의료는 대면으로 초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 서면 허용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규제는 전폭적으로 완화됐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후생노동성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원격의료 확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규

주요 국가 원격진료 도입 현황

미국	1993년 원격의료 합법화. 최근 5년간 연평균 34.7%씩 성장. 2019년 시장규모 24억 달러
프랑스	2010년 원격의료 개념과 범위 정의. 2014년 원격진료 시범사업. 2018년 본격 시작
중국	2015년 서부 5개 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인도네시아	2012년 원격진료 시범사업. 2016년 본격 시작
일본	2015년 대면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전면 허용 계획

코로나19 이후 2~8월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수	7730개
시행 건수	68만8794건
진찰료	99억6258만 원



제 개혁’을 발판 삼아 진일보한 것이다.

유럽에서도 원격의료는 활발하다.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영국은 2008년부터 원격의료의 비용 효과성과 유용성을 연구했다. 프랑스는 2014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를 원격의료까지 확대했다. 대면 진료와 동등한 보험수가를 제공하고, 80가지 이상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도 넓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에서만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2015년 초 서부 5개 성을 원격의료 시범지로 정한 뒤 2016년 전국 확대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상시적 도입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상급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7730개, 시행 건수는 68만8794건이었다. 진찰료는 99억6258만 원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상담의 53%, 진료비 청구액의 52%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릴 우려를 불식시켰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이점 걸음마를 댄 만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들의 요구와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패키

지 딜’을 해야 한다”며 “우선 1차 의료 역할을 하는 의원과 요양병원에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어차피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낮다. 1차 의료기관에 원격의료를 도입해 3차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고령층, 취약 지역 등인데 이들이 정보기술(IT) 이용이 제한적인 만큼 지역, 소득·교육 수준, 연령대 등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 의료의 또 다른 한 축으로 IT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스마트폰 앱, 게임, VR(가상현실), 챗봇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과학적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 치료가 목적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 중독치료, 불면증, 코로나블루 등 관련 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를 출간한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은 “의료는 어디까지나 의료가 중심이어야 하며,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중심이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현장에 접목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인터뷰 강성지 웰트 대표

“한국 IT기술·의료 세계적 수준 ‘K디지털치료기’ 해볼 만한 싸움”



“현재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몇몇 나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하진 못했다. 그런 만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 IT기술로만 들어 한국 의료진의 실력으로 검증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디지털치료기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자 디지털치료기기 스타트업 ‘웰트’를 이끄는 강성지(34·사진) 대표는 우리나라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의 가능성을 이처럼 낙관했다.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2017년 미국의 ‘피어 테라퓨틱스’가 중독치료용 앱 ‘리셋(ReSet)’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FDA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으면서 시장을 열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뒤늦게 뛰어든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웰트는 현재 알코올중독증, 불면증, 근감소증 관련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증과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바이오벤처 뉴냅스가 뇌손상에 따른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를 추월할 파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강국인 만큼 이를 활용해 디지털바이오마커(디지털 장치 등을 통해 수집·측정되는 객관적·전략적인 생리학적 행동 데이터)를 발굴하고 진화한 디지털치료기기를 시장에 선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약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시장에 내놔는데 약이 바뀌면 안 되지 않나. 하지만 디지털치료기기는 진화한다”며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질병의 증상이 변화하는 등 환자의 인지와 행동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가 개인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 성공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출시 이후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 강 대표는 “임상 후 허가를 받고 출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출시 후 디지털바이오마커를 발굴해 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www.Mercedes-benz.co.kr

E-Class 제원 정보
E 220 d 4MATIC Exclusive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900kg, 자동9단), 복합연비: 13.2km/ℓ(도심연비: 12.2k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 3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45g/km
E 250 Exclusive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8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1.7km/ℓ), 등급: 4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77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秋-尹 라임수사 총돌 “총장이 뭉개” vs “턱도 없는 소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추미에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는 18일 라임의 실질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을 담은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해 검찰청 결과와 윤 총장이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말도 안 된다”며 “내가 왜 수사를 뭉개느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수사팀이 야권 인사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일선에서 수사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은 여든 아든 철저히 수사해 규명하라 했다”고 밝혔다.

◇옥중 자필 입장문 뒤흔들기=라임 사태는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호회를 인수한 후 상호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 뉴시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윤 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거된 후 전원 출신 A 변호사와의 첫 접견 때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서 “당신이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강기정(정무)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변호인 통해 자필 입장문 공개 “野 인사에 로비 검사 밝혔지만 수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짜맞추기’ 檢 ‘중상모략’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에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와 관련된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서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추미에·윤석열 전면전=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착수해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윤 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팀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치인과의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직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면서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으며 남부지검에 2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 수사팀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 소관 사항이고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옵티머스 로비의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 두 차례 실행

7월 잠적... 中 밀항 가능성 3년 전 불법 환치기 전력도

1조5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영제 NH투자증권 사장을 만나 판매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가 과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 대표는 2009년 건설사들이 A 경제단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역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는 등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1년에는 B증권사 재직 당시 신용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에 금융회사 직원을 소개해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고가의 골프장회원권, 명품 만년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기소는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00년대 초 동부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건설사인 씨앤우방 대표를 지냈다.

2010년 씨앤그룹 정관계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후 금융시장에서 물러났으나 오랜 기간 증권 업계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물밑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권유를

받고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초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50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중 80% 이상을 판매한 증권사다. 정 사장은 정 대표가 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개인 대출 문의로 찾아와 실무진을 연결시켜 준 적이 있을 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실무진 소개 건도 실무자 검토 후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가 2017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700억 원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대표는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직후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7월 중순 본지와 통화에서 자신이 옵티머스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중국 밀항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로 정 대표는 과거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사업을 벌이는 등 현지 인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지 확인 결과 정 대표는 3년 전 불법 환치기로 85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한 이력도 있다. 환전 시기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임원직을 제의 받았던 때다. 당시 그가 환전한 금액이 단순히 여행 경비로 쓰기에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중국 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기영 기자 pgy@

김봉현 우리은행 로비 의혹... 금감원 ‘라임 징계’ 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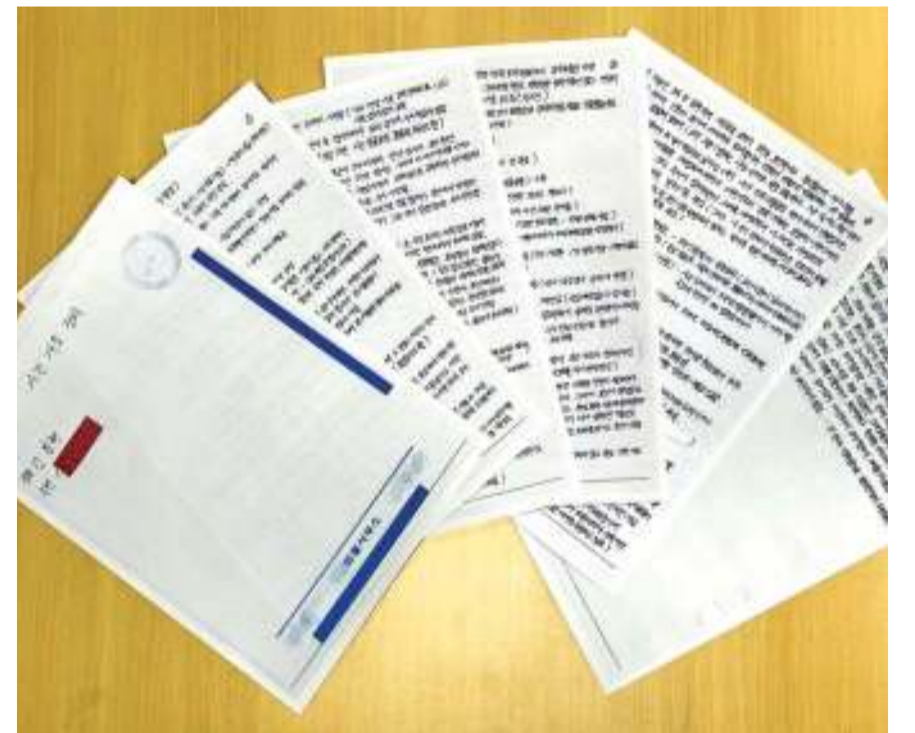
우리銀 “사실무근” 해명에도 뒷말 당초 이달 중 은행 징계 수위 통보 제재 따라 CEO들 연임 판가름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 CEO들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은행별 라임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769억 원, 871억 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라임 관련 제재심 가동을 본격화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연합뉴스

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현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연말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징계 수위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 수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진 행장은 통상 임기인 ‘2+1년’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경영성과도 나쁘지 않아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 징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된다.

손태승 회장은 올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라임펀드 관련 선보상을 결정할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오갔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외환파생상품 키오(KIKO) 분장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또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소비할인권 단계적 재개... 박물관·전시장 최대 3000원

1000만명에 '소비쿠폰' 제공

▶1면서 계속

공연장 최대 8000원 할인 재확산 안심하긴 이른 단계

9월 중순 이후 서비스업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전체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4분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수출 실적은 10월 들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반도체·자동차 등이 해외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수출을 보면 1분기 -5.4%에서 2분기 -18.5%까지 악화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7월 -7.1%, 8월 -4.0%, 9월 -4.0%)까지 마이너스 폭을 줄였고, 10월엔 10월까지 2.8%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일 충남기 경제부총리는 1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 국민의 하나 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간 중단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분야별로 보면 박물관(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 미술전시(1000-3000원 할인), 공연(1인당 8000원 할인) 등은 22일부터, 영화(1인당 6000원 할인)는 28일부터, 체육시설(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은 다음 달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단, 방역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의 쿠폰을 의미한다. 집행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쿠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소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전국 17

개 시도가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는 고등어, 우럭, 송어, 굴 등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2월에는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광, 스포츠, 박물관 이벤트 등을 만들어 관련 분야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도 한 박자 빠른 할인으로 코세페이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지원한다. 롯데그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역대 최대 할인전을 펼친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내달 15일까지 최대 명품 라인업으로 롯데온과 백화점·아웃렛 주요 5개점에서 명품대전 행사를 연다.

롯데온은 23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롯데온세상' 행사를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다. 50만 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이번 행사에는 롯데유통 계열사 7개가 총출동한다.

신세계와 SSG닷컴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80% 할인하는 '아웃터 페어'를 마련했다. 남성, 여성, 아동용 비롯해 스포츠, 아웃도어, 프리미엄 패딩까지 100여 개 브랜드에서 5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선보인다.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은 19일부터 25일까지 '삼성 에메이징 워크'를 진행한다.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삼성전자 행사 상품을 2품목 이상 구매하면 엘포인트를 최대 42만 포인트 지급한다.

전자랜드는 22일까지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패밀리 세일은 전자랜드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에 2회씩 진행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객은 결제 금액의 최대 20%까지 e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계 확진자 4000만명 돌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그 규모가 줄었으니, 경제적 타격을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 같다"면서도 "다만 단계로 조정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만약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2단계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도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셀트리온 찾은 이낙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 점검에 나선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소를 방문해 서정진(맨 왼쪽) 셀트리온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스가 측근 만나... 한일관계 물꼬?

가와무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양국 현안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가와무라 간사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일정 조율을 위해 17일 방한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관방장관

과 문부과학상을 지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는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만큼 가와무라 간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면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지지 요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가 경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제시를 연내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등 한일 관계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나왔을지 주목된다.

전날에는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에 공물을 봉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與 잇단 증인 거부에... 국민의힘 '셀프 국감'

피살 공무원 형 불려 간담회 "실족 가능성... 與 국감 방해"

국민의힘이 18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당 없는'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열었다.

애초 국정감사에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작성하고 '방탄 국감'을 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인을 불러 대국민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국감에 나 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리한 상황이나 정정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원 2명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이 중반에 돌입했지만 정책 논의는커녕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증인으로는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 이 씨 측 류제화 변호사,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 신희석 국제연합(UN·유엔) 인권법 전문 박사, 탈북자 등 5명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농해수위의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어 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오른쪽) 씨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원들과 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증인·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증인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며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국감 중에서 가장 부실하고 최악의 국감"이라며 "오늘 우리가 마련한 국민 국감에서라도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들은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실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씨는 "동

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 계장도 유속, 바람 세기 등을 거론하며 "당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실족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 씨는 또 "살해되기까지 정부는 왜 동생을 구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지 궁금하다"면서 "동생 명예는 국가가 지켜야 하고, 예우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면서 "실족 가능성, 구조대신 월북 정황 증거 찾기에 시간 허비한 점, 국제법 및 국가의 국민보호 위반 등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 등 추후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해외 대신 국내 골프, 내수효과 최대 3조"

현경연 "지속적 성장전략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골프 여행 대신 국내 골프장을 다닐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최대 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골프산업의 재발견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 해외 골프 활동인구의 1인 평균 지출액에 작년까 지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최근 해외 골프 활동인구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최소 101만 원에서 최대 143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해외 골프 활동 인구와 1인 평균 지출액을 곱하면 내수진작 경제적 효과는 최소 2조2000억 원에서 최대 3조1000억 원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년 한국골프지표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현재 해외 골프 활동인구가 연간 최소 215만 명에서 최대 220만 명이라고 봤

다. 연구원은 또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골프장 운영업'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가 작년엔 4조5000억 원, '골프연습장 운영업' 시장 규모는 2조2000억 원인 것을 토대로 미래 성장을 추산해 보면 2023년에는 골프산업 규모가 총 9조2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국내 골프장 운영업은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 가치가 증대되면서 지난 5년간 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최근 거리가 제한된 골프장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 주요 매물의 공시 가치는 총 약 7801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골프장 운영업은 다른 스포츠나 서비스업 생산 대비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적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영록 기자 syr@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61명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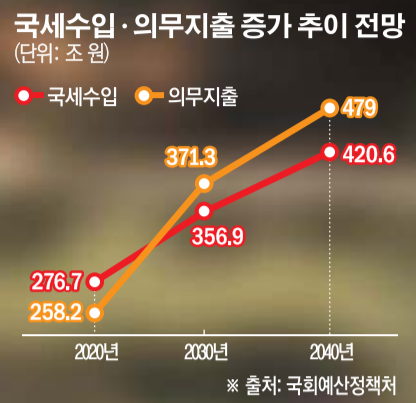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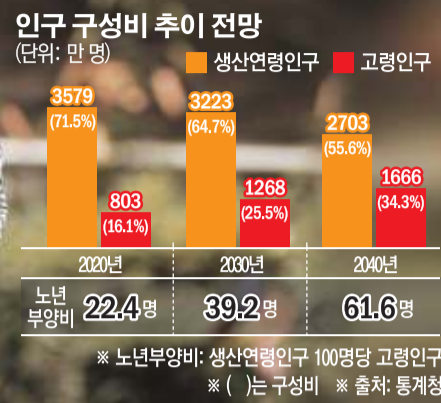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글 쓰는 순서〉

1. 가난한 노후, 힘든 삶
2. 끊지 못한 가난의 굴레
3. 현 중장년층, 미래의 빈곤층
4. **이대로 두면 미래의 재앙**
5. 겉도는 입법, 손놓은 정치
6. 노인빈곤, 지금부터 준비해야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 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대의 생산연령인구 이탈이다. 696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65~74세 인구는 올해 458만 명에서 10년 뒤(2030년) 744만 명으로 64.4% 급증하고, 2040년엔 8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다.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돼도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는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급대상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개편하면, 노인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될수록 수급자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아껴진 자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극빈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초기에 정해진 소득인정액 미만 노인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득하위 60%(당시) 노인에 지급되던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도 작을뿐더러, 국민연금 가입을 ‘불이익’으로 만드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노인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자산 수준이 높다”며 “효과 측면에서는, 재정 측면에서는 현재의 기준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40년 노인 인구 1666만 예상 세수 52% 늘때 의무지출 86% ↑ 기초연금, 비율 아닌 금액 개편 아낀 재원으로 빈곤노인 지원을

상된다. 더 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 이탈과 저출산에 따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79만 명(구성비 71.5%)에서 2040년 2703만 명(55.6%)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2명, 2040년 61.6명으로 급

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노인인구가 2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수는 줄고, 사회보장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76조7000억 원에서 2030년 356조9000억 원, 2040년 420조6000억 원으로 향후 20년간 52.0%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큰 의무지출은 올해 258조2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서 2030년 371조3000억 원, 2040년 479조 원으로 20년간 85.5% 급증할 전망이다. 벌어지는 국세수입과 의무지출 간 차액을 재량지출 축소로 메우지 않

는다면 자식 세대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나랏빚을 내 손자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중산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빈곤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짜인 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미래 노인(65세 이상)이 가난해진다 고 했을 때 재정부담 증가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세대 간 갈등이다.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 시기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부모·자녀 이중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희생으로 후세대는 경제·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대표되는 50·60대 주류 세대에서 단절됐다. 호봉제 중심의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노인 일자리 확충, 세금 낭비” 청년들 무분별 노인복지 반대

임금체계와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치중된 노동운동, 1990년대 이후 가파른 집값 상승은 50·60대를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세대로 만들었지만, 청년 세대(15~29세)를 가장 가난한 세대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노인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긴 쉽지 않다. 세대 간 갈등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무분별한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다. 30대 일반 직장인인 김한석(33·남) 씨는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리다면서 불필요한 자리까지 만드는 등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청년은 미래 세대를 부양하는 당사자들인데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거노인이나 비생

산인구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정책과 불균형은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선택한 비율은 13.1%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이 비율(25.7%)이 높았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초고

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향후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베이비부머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5~10년 뒤에 받아 가는 형식이 적용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윤기쁨 기자 modest12@

희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희망은 ON!

정부, 희생법원, 캠프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희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희생법원의 신속한 희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희생절차(S-track), 사전희생계획제도(P-plan)

캠프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선한 영향력

=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능력

플라스틱을 줄이는 불편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고래들의 터전인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아픔은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10월 서프라이즈 없다”... 코로나 백신경쟁 ‘원점회귀’

화이자 “긴급사용신청 내달 말로”
트럼프 ‘10월 깜짝쇼’ 주장 일축
‘줄속실험’ 불신에 부담 느낀 듯

전 세계가 고대했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불꽃 튀던 백신 개발 경쟁이 안전성 우려에 잇따라 좌초되면서 ‘10월 백신 출시설’은 말 그대로 ‘설(說)’에 그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던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사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긴급 사용허가 신청은 11월 셋째 주 이후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백신이 안전하고 규제 기준을 만족한다는 확신을 해야

세계 주요 기업의 백신 개발 일정

국가	영국	미국	미국	미국	중국	러시아
개발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J&J	시노백 시노팜	기말레야
3월		1단계				
4월	1/2단계					
5월		2단계	1/2단계			
6월						1/2단계
7월	최종	최종	최종	1/2단계	최종	긴급사용승인
8월						긴급사용승인
9월	시험중단 발표	상용화 연기 발표	상용화 연기 발표	최종		
10월				시험 중단 발표		
11월			긴급사용승인 신청			
12월	승인신청 계획	긴급사용승인 신청				

한다”며 “현재 투약 속도를 고려하면 11월 셋째 주 이후에나 이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전략으로 11월 3일 미국 대선 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10월 안에 백신이 출시되

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 선두 업체들이 잇따라 임상 시험을 중단한 데 이어 믿었던 화이자마저 대선 이후로 출시 일정을 연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화이자의 이날 발표는 최근 다른 제약업

체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잇따라 탈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은 3월부터 불이 붙었다. 현재 제약업체 10곳이 임상 시험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마다 임상 중단과 일정 조정 등을 발표하며 연초에 보였던 속도감을 찾지 못했다.

12일 존슨앤드존슨(J&J)은 임상 3상에 참가한 환자에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타나 6만 명 규모의 임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 역시 이달 안에 임상 시험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11~12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복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8일 전 세계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했다가 4일 만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임상 시험을 재개했다.

제약업체의 연이은 임상 중단은 줄속 개발에 따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치료제는 감염자에게, 백신은 건강한 정상인에게

투여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백신 개발에는 최소 3~5년이 걸리고,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투여 후에는 부작용의 빈도와 종류, 예방 효과 등을 1~2년 동안 관찰해야 한다. 제약 업계에서는 “제약업체의 생명선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해당 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임상 시험에 할당할 시간이 2~3개월에 불과했다. 미국의 ‘워프 스피드 작전’ 등 각국 정부가 연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안전성’보다 ‘속도’에 방점을 찍은 탓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기업으로선 신뢰성과 브랜드에 대한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불신에 부담을 느낀 제약업체는 지난달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최혜림 기자 rog@



비상치령·물대포도 못 막은 ‘분노의 세 손가락’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17일 방콕의 한 교차로에서 반정부 시위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와 함께 뿌려온 찌오차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다. 태국 정부가 5인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치령을 발령하고,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시위는 갈수록 거세진다. 시위대는 총리 퇴진, 군부 정권 제정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 등을 외치고 있다. 태국의 반정부 집회는 2월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되면서 촉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해졌다가 최근 재개됐다. 방콕/EPA연합뉴스

유엔, 對이란 무기금수 해제에 美 “거래 안된다” 독자제재 방침

1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됐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 제재를 경고해 앞으로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모두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결의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전 이란과 미국·러시아·중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6개국에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날 해제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란은 장기간에 걸친 제재로 장비의 노후화가 과제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훈련기, 탱크 등을 구입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무기, 부품, 기술 등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독자적으로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지난 8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고, 안보동맹국들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결국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복원된 제재를 지키지 않을 시 미국 내 권한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경고했다. 미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외면받자 이란은 “오늘은 미국의 음모에 반해 국제 사회가 핵 합의를 지킨 중요한 날”이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아이폰 조립하던 폭스콘 ‘전기차 OS’ 도전장

전기차용 ‘오픈소스 플랫폼’ 출시 계획... “2027년까지 점유율 10% 확보”

애플의 아이폰 조립 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 폭스콘테크놀로지가 ‘전기차 산업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폭스콘은 16일(현지시간) 행사를 열어 ‘MIH 오픈 플랫폼’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기차 조립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는 높은 애플 의존도와 기타 사업의 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돌려 세계 1위 모바일 OS가 된 것처럼, 폭스콘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자유 자재로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앞세워 전기차 업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다.

폭스콘은 모든 전기차에 맞는 조립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세단까지 차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퀴의 거리나 배터리 크기 등을 자사 기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새로운 모델 출시 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진다.

윌리엄 웨이 폭스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리우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약 30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약 5년 후에는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300

만 대가 도로를 달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엘리드마켓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이 2027년까지 8000억 달러(약 917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우 회장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없다”며 “11월 중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스콘은 현재 대만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위룽그룹과 전기차 생산 제휴를 맺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과 합작사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 초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폭스콘은 30년 동안 PC와 스마트폰 조립으로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그러나 의존도 높은 애플에 실적이 좌우되다 보니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혜림 기자 rog@

한국행 택하는 日 소부장 기업

▶1면서 계속

아데카는 이곳에서 ‘고유전재료’라 불리는 반도체 화학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유전재료는 반도체 메모리 저장용량을 극대화해 디바이스 크기를 소형화하는 데 주요한 소재로, 아데카는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으로 알려졌다.

아데카가 한국으로 R&D 기능을 일부 옮기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5G용 등 첨단 소재에 대해선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일본 내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객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첨단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한국 현지에서 공동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본격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7월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

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규제 초기에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환율 방어와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한국으로 R&D와 생산 라인을 옮기는 일본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도쿄요코카고교는 작년 상반기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터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간토덴카코교는 일본에서만 생산하던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생산을 작년 가을부터 가동한 한국 공장으로 돌렸다. 또 전자기기 부품을 만드는 다이요홀딩스는 반도체 기판에 사용하는 절연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 새 회사와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JSR는 벨기에 합작사와 생산하는 EUV 레지스터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탈일본’ 영향은 2년 정도 계속될 것”이라며 “일본에 R&D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객·신작·자본 사라졌다... 코로나發 ‘시네마 지옥’

글로벌 영화산업 ‘풍전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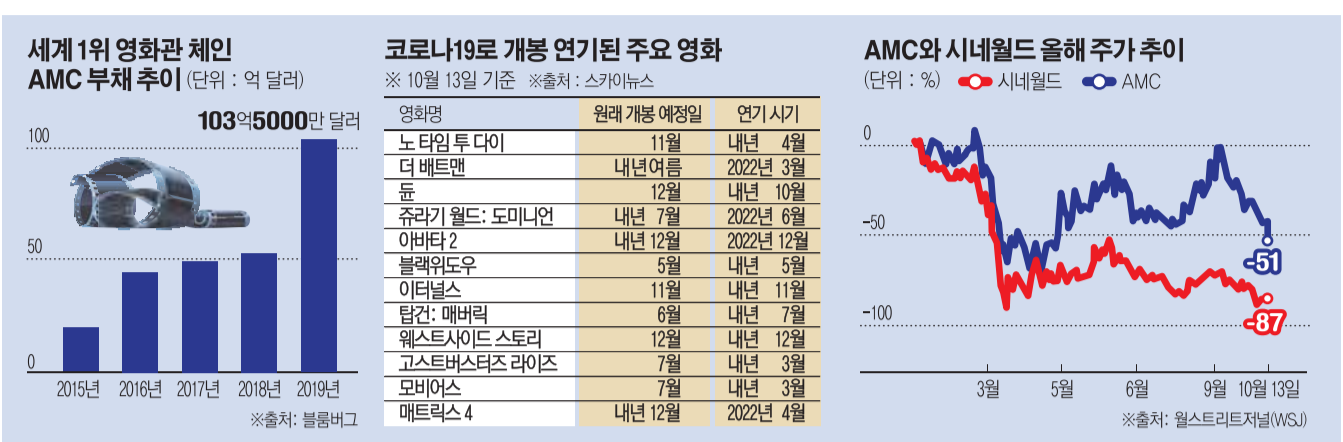
제작사 “개봉해봤자 볼 사람 없다”
007 신작·윈더우먼 등 상영 미뤄
영화관 “연말 현금고갈” 일시 폐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에는 각국의 도시 봉쇄 정책으로 영화관이 폐쇄되면서 관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소소한 작품은 물론 블록버스터급까지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화관들이 상영작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진단했다.

세계 1위 영화관 체인 AMC는 13일(현지시간) “4분기에 극장에 내걸 신작이 크게 줄었고, 관객도 현 수준에서 뚜렷하게 늘어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유 현금도 연말이나 내년 초만 고갈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AMC는 지난 9월 시점에 미국 내 약 600개의 영화관 중 494곳을 재개장했다. 그러나 수용인원은 전체의 20~40%로 제한했다. 세계 2위 영화관 체인 시네월드도 9일 미국 내 ‘리갈시네마’ 극장 536곳과 영국 내 127개 극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시네월드는 극장 폐쇄의 가장 큰 이유로 MGM과 유니버설픽처스가 공동 제작한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최신작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개봉 연기를 꼽았다. 이 영화는 당초 11월 개봉 예정이



었다. 그러나 제작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블록버스터를 개봉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결국 ‘노 타임 투 다이’는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관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으나, 지금은 대작들의 잇따른 개봉 연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워너브라더스의 ‘윈더우먼 1984’의 경우, 세 차례나 개봉이 연기된 끝에 올해 크리스마스를 상영일로 잡았으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윈더우먼의 감독 패티 젠킨스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극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영화관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 산하 마블의 영화는 올해 단 한 편도 극장에 걸리지 못하게 됐다. 올해 5월 개봉 예정이었던 ‘블랙위도우’가 몇 차례의 연기 끝에 결국 내년 5월 개봉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영화관들을 살리기엔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한탄했다. 영화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으로 관객 감소에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다. 관객들에게 직접 음식을 날라주는 등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펼쳤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다. 지난해 AMC의 총부채는 약 100억 달러(약 11조48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재난이 극장가를 덮쳤다. 업계는 블록버스

터 상영작의 부재로 9개월 넘게 매출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다. 미국 국립극장소유자 협회는 “중소 영화관 10곳 중 7곳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 양대 영화관 체인 AMC와 시네월드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거나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권 영화관 체인의 현재 주가가 5년 전의 2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최신작이

절실하다. 투자은행 B.라일리의 에릭 올드 선임 애널리스트는 “할리우드는 영화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화 제작사들도 극장을 위해 자선을 베풀 여유가 없다. 워너브라더스가 올 여름 개봉한 흥행 기대작 ‘테넷’은 미국에서 4500만 달러 수입에 그쳐 손익분기점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극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영화관 체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비판했다. 영화관들은 허약해진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미루고 관람료를 올리며 문을 닫아야 할 신세가 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관객들이 극장과 멀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한국 영화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내 업계도 100년 영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영화 관객 수는 4687만 명으로 전년 동기의 1억5602만 명 대비 70% 급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관객들 발길 끊자 ‘뒤푠이’도 실종 술집·볼링장 등 부대산업 ‘벼랑끝’

세계 영화 산업을 뒤흔친 ‘대공황’이 영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영화관 유동인구에 기대 수익을 창출해 왔던 부대 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영화관 운영으로 파생 효과를 누리던 레스토랑, 술집, 볼링장, 피자집, 커피전문점 등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대량 해고는 물론이다.

BBC에 따르면 세계 2위 영화관 체인 시네월드가 영국 내 영화관을 무기한 폐쇄키로 하면서 주변 볼링장에서 8000개, 피자익스프레스 1100개, 브런치 전문점 프랭키앤베니 2000개, 피자헛 450개의 일자리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개리 브림블 텐핀볼링협회 사무총장은 “고용 인원만 8000명에 달하는 볼링 산업의 경제효과는 연간 3억5000만 파운드(약 52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시네월드 폐쇄로 볼링장과 레저 파크를 찾는 고객 수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영화관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업계에도 불뚱이 될 전망이다. 영화관 인근에 115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치킨 맛집 난도스도 올상이다.

클레어 베일리 유통 관련 애널리스트는 “시네월드 폐쇄로 수천 개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국의 대표 영화관 체인인 오데온도 주말에만 영업을 한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산업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데온은 영국에서 120개 이상의 영화관을 운영하며 54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에도 불뚱이 튀고 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디즈니는 최근 테마파크 직원 2만 8000명을 해고했다.

미국 테마파크 체인 식스플래그는 고객 1인당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홍콩디즈니랜드도 일주일에 이틀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놀이공원연합(IAAPA)은 미국의 회에 코로나19로 23만5000개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으며 업계 수입이 미국에서만 230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는 5월 ‘코로나19 충격: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이 작년보다 최대 70% 급감하고, 2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진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제작 현장 피해 규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82개 작품의 실제 피해 총액(1~4월 기준)은 213억8993만원으로 집계됐다.

극장 매출 감소에 한국은행의 영화산업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전체 영화산업종사자 약 3만878명 가운데 2만 명이상이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동상 영화는 제작부터 개봉까지 2년가량 걸리므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상당 기간 영화 출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영화 산업은 제작과 배급, 상영 각 부문에서 1~2년가량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심박만 화 화 다 내 알 만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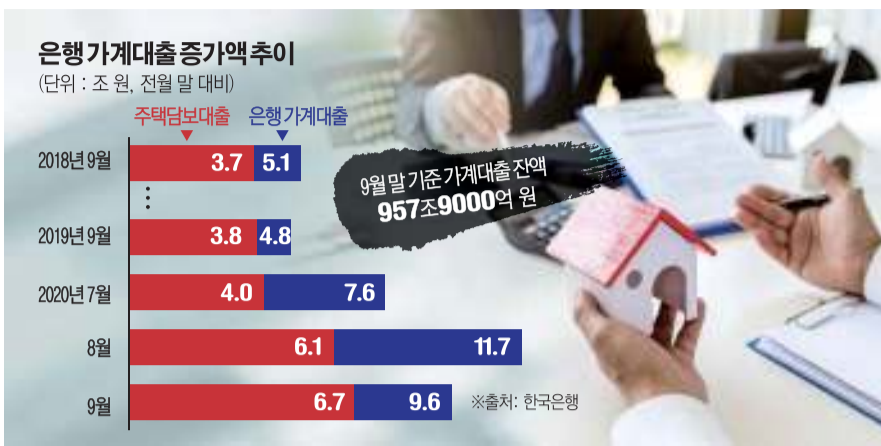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팀 제9-62호(2019.02.2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전면 확대 부작용 우려... 당국, 가계대출 '핀셋 규제'

조정대상지역 'DSR 40%' 적용 투기지역 '시가 6억' 하향 검토 이달 대출규모 따라 규제 폭 결정



금융당국이 핀셋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DSR 전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대출 규모에 따라 규제의 폭과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 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확대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할 총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겐 '40% 이하 유지(비은행은 6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조건의 경우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길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확대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존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시가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과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살핀 다음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안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가계대출은 9조 6000억 원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 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10월 대출 규모를 살펴봐야 어떤 '칼'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실직·폐업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미취업 특례 만 34세 확대 등 금융위, 신용회복 제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개인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최

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이들은 제도가 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 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 채권금융회사

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한도 2배 상향·금리 인하·중복 허용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문전성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대출 실적이 대출 한도 증액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간의 대출 건수와 금액이 지난 4개월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에 높게는 4.99%까지 설정됐던 금리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일제히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건수는 모두 9만 4147건, 총 1조 21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실행된 2차 긴급

대출은 3만 6509건(38.8%), 6393억원(52.6%)이었다. 5월 말부터 4달간 이뤄진 2차 긴급대출이 5만 7638건, 576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 2월부터 연 1.5%의 최저금리를 적용한 1차 대출을 가동했고,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5월 말부터 2차 대출을 가동했다. 그러나 2차 대출 소진율이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인기가 시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 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채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대중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장마의 날이란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 회계관리
- 기업전용 메신저
- 화상회의
- 메일
- 전자결재
- 웹오피스
- 인사관리
- 내PC 원격접속
- 웹스토리지
- 팩스
- 거래처관리
- 명함관리
- 조직도
- 문서협업솔루션
- 할일관리
- 일정관리
- 노트
-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발도, 도메인)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이재용 부회장, 오늘 베트남행...글로벌 현장경영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 휴대폰 최대 생산기지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이 부회장은 20일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다. 14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유럽 출장 5일 만에 광폭 행보
삼성폰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
베트남 총리와 투자 확대 논의
현지 언론 "배터리 공장 건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출장에서 돌아온 지 5일 만에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를 재개한다.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등을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 협의를 한 이 부회장은 이번엔 삼성전자의 휴대폰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을 찾는다.

18일 베트남 현지 소식통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20일 베트남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길에 오르는 것은 2018년 10월 방문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이 부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하는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기공식 참석을 위해 베트남 출장 일정을 잡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과 자가격리 등의 문제로 베트남 출장길이 막혔다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교관과 기업인 등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패스트트랙'(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인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베트남 출장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과 삼성전자의 인연은 각별하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 해외기업 중 하나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10월 베트남을 찾아 응우옌 쑤언 폭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해 11월엔 방한한 폭 총리와 다시 면담하고 신규 투

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폭 총리는 이 부회장을 만날 때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성공이라고 여긴다"면서 베트남에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요청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폭 총리의 거듭된 투자 요청에 구체적으로 '화답'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북부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성에는 삼성전자 최대 휴대폰 공장이 있다. 호찌민시에는 TV와 가전제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현지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전자 관계사의 공장도 카메라 모듈, 기판 등 삼성 협력사들이 모여 있다.

2월부터는 베트남 하노이 THT 신도시 지구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공사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폭 총리와의 만남에서 베트남이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의 전초기

지로, 베트남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연간 휴대폰 생산량은 약 3억2000만 대로, 베트남 공장에서 연 1억5000만 대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 부회장이 베트남에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베트남에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한 휴대폰 배터리를 조립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납품하는 조립라인은 갖고 있으나 배터리 제품 관련 생산라인은 없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이에 대해 "베트남 투자계획에 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베트남 출장에서 하노이에 건설 중인 R&D 센터와 휴대폰 공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록 기자 syr@

제네시스 G80, 브랜드 첫 '국내 베스트셀링 톱10' 눈앞

9월까지 3.9만대...내달 진입 유력
벤츠 제치고 국내 고급차 시장 1위

제네시스 대표 세단 G80(사진)이 국내 베스트셀링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제네시스 모델이 베스트셀링 톱10에 포함되는 건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80은 올해 1~9월 국내에서 3만9133대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국내 판매량 10위인 기아차 셀토스(4만274대)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월평균 6000여 대가 판매되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 3월 말 출시된 3세대 모델(디 올



뉴 G80)은 출시 첫날에만 2만2000대가 계약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G80의 올해 1~7월 판매량(2만8993대)은 작년 G80 전체 판매량(2만2284대)을 넘어섰다. 9월 국내 판매량은 6040대다.

G80의 선전에 힘입어 제네시스(7만7358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벤츠(5만3571대), BMW(4만1773대) 등 수

입차 브랜드를 누르고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베스트셀링기는 매년 판매 대수가 많은 순으로 톱 10위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2000~2010년은 현대차 쏘나타가 1위를 지켰고 2011년부터 3년간 아반떼가, 2017년부터는 그랜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국내 판매 1위 자리는 그랜저가 이미 차지했다. 그랜저의 1~9월 누적 판매량은 11만3810대로, 2위인 현대차의 상용차 포터(7만1347대)와 4만 대가량 차이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포터와 기아차 K5(6만6716대), 아반떼(6만3570대), 쏘렌토(6만2622대) 등 현대차그룹 내에서 2위 경쟁이 치열하다. 유창욱 기자 woogi@

SK종합화학 3년간 735억 투입 中企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지원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종합화학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톱 큰 지원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들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은 협력사의 경쟁력 자체를 강화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735억 원 규모 '혁신주도형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종합화학은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인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현금 지급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직무교육, 해외진출, 창업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 지급능력 제고' △자체적으로 만든 상생 기금을 이용해 급여를 지원하고 SK정비동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 △우수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동반성장펀드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안정금융' 등 지원에 나선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기아 해결' 공익광고

LG전자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LG전자는 15일부터(현지시간) 3일간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인 10월 16일을 맞아 홍보 영상(사진)을 올렸다.

이 영상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제작한 것으로 기아 종식을 위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제기구나 NGO(비정부 기구) 등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공익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LG 희망스크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기관이 LG 희망스크린에서 세계 환경의 날,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재해 구호, 유엔총회 등을 알렸다.

LG전자는 이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두산인프라 '플래그십' 굴착기 국내 첫선

80톤급 초대형...버킷만 4m³ 넘어

두산인프라코어의 초대형 굴착기가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이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능률과 품질을 인정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80톤급 굴착기 DX800LC(사진)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DX800LC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이다. DX800LC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두산인프라코어 플래그십 모델이다. 한국 공학한림원이 발표한 '2019년 산업기술성과 15선'에 선정되어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우수 기술 제품에 꼽히기도 했다.

DX800LC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 중인 5톤급 굴착기(DX55-5K)에 비해 13배 이상 크다. 토사를 담는 버킷 용량은 4.64m³에 달한다. 0.175m³인 DX55-5K보다 27배 가까이 큰 용량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독자개발한 전자식 통합 유압 시스템 '스마트 파워 컨트롤'을 적용해 작업 성능과 연비가 뛰어나다.

장비에 가해지는 작업 충격을 완화해주는 인텔리전트 붐(Intelligent Boom) 기능, 장비 주변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VM(All-around View Monitoring) 등도 장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QLED, 英 IT 매체서 '최고의 8K TV'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8K TV가 영국에서 '최고의 8K TV'로 선정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IT 전문매체 '왓하이파이'(WHAT HI-FI)는 올해 출시된 다양한 TV 제품들을 8개 부문으로 분류해 최고의 TV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TV는 8개 부문 중 절반인 4개 부문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뽑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최고의 8K TV'에 삼성 QLED 8K TV(모델명 QE75Q950TS)가 선정됐다. 왓하이파이는 "이 제품은 1.5cm 균일한 두께로 슬림한 디자인 면에서 경쟁 제품을 능가하고 사운드와 방열에 최적화된 모서리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다"며 "4K 콘텐츠 처리 면에서도 기존 4K TV를 뛰어넘는 생생함을 준다"고 호평했다.



QLED 8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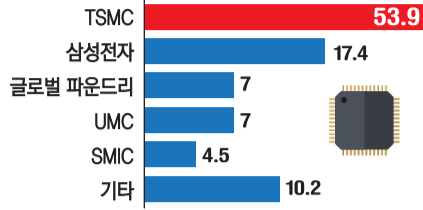
이외에 삼성전자 제품은 △최고의 40~43인치 △1000파운드(약 150만 원) 이하 최고의 48~50인치 △1000파운드 이하 최고의 55~58인치 등 3개 부문도 휩쓸었다. 소니는 1000파운드가 넘는 최고의 48~50인치 TV, 2000파운드 이하 최고의 65인치 TV를 차지했다. 송영록 기자 syr@

반도체 합종연횡에 '삼성 파운드리' 시험대

1위 TSMC, 애플·인텔 물량 수주 점유율 54%...역대 최고 월 매출 中SMIC, 7나노 개발 '반도체굴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단위: %) ※ 3분기 추정 ※ 출처: 트렌드포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이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계의 합종연횡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18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미국의 압박에도 초기 7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공정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SMIC의 기술 수준은 14나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SMIC의 7나노 공정 개발 완료 소식은 중국 언론의 자국 기업 띄워주기 담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는 EUV 장비를 늘리며 1위 다지기에 나섰다. TSMC는 화웨이 공백에도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24.9% 증가한 1275억8500만 대만 달러(약 5조12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이다. 초미세공정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기업의 고사양 반도체 생산을 독식하며 호실적을 거뒀다. 최근에는 애플과 인텔 물량까지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4%로 2위인 삼성전자(17%)와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최근 EUV 장비 수주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UV 장비를 생

산하는 ASML에 따르면 3분기 국가별 매출 비중 가운데 대만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분기 38%에서 3분기 26%로 줄었다. EUV 노광은 극자외선 광원을 사용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합종연횡에 따른 고객 다변화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 다수가 삼성전자 시스템 LSI(고밀도집적회로)에서 나오고 있다. 퀄컴 등 삼성 외 고객사로부터도 물량을 수주받고 있지만, TSMC보다 주문 물량이 적고, 주문받은 물량도 대부분 중저가 제품 중심이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만 IBM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퀄컴 5G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까지 생산을 맡으면서 고객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버 없이도 반도체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 'SAFE-CDP'를 출시하기도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토탈, 초중고생 대상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한화토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에코더하기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화토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달 6일부터 약 40일간 진행한 에코더하기 자원순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더하기 자원순환 캠페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습관을 길러주는 한화토탈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환경교육 현장에 나서는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이 중요한 이유와 자원순환에 대한 의지를 담은 20자 내외의

슬로건을 응모하는 '자원순환 슬로건 공모전'에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10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슬로건 아이디어를 뽑았다.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은지 학생의 슬로건 '분리는 끼리끼리, 환경은 길이길이'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한화토탈 대표이사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상 등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한화토탈은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키트를 제작해 총 23개 아동기관에 500여 세트를 배포하기도 했다.

놀이키트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보드게임, 과학교구, 친환경 문구류 등으로 구성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포스트 코로나' 성장 해법은... SK 경영진 머리 맞댄다

21일부터 제주서 'CEO세미나'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회의



지난해 6월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SK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시장에서 SK그룹의 도약을 위한 '딥 체인지(Deep Change·근원적 변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2020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SK그룹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매년 열리는 이 세미나는 내년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통상 최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회 조대식 의장과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계열사 CEO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CEO 세미나는 '딥 체인지 실행,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열렸다. 당시 최 회장은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CEO 세미나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한 만큼 딥 체인지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코로나19를 위기로 단정 짓지 말고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계열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열린 확대경영 회의에서 키워야 할 기업가치로 지속가능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고객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 지적 재산권·일하는 문화와 같은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토털밸류라고 방향을 잡은 만큼, CEO들은 이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등 에너지·화학 그룹사는 전통적 에너지 산업으로는 성장이 정제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환경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기업가치를 혁신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얻은 열분해유로 화학제품 시제품을 만든 성과 등 그린밸런스 전략의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와의 거래가 끊기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에 따라 화웨이를 대체할 공급처 확보를 비롯해 CIS(이미지센서), 파운드리, AI(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 점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또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심사 등에도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텔레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AI와 DT 등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과 글로벌 선두기업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최근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 테크놀로지'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위생을 생각해 손대지 않고 알아서!

무전원 자동 물내림 시트 - 레노크

여러 사람의 용변 본 손이 닿는 곳 - 변기 레버를 누를 때 마다 들던 찜찜함이 사라집니다. 용변 후 일어나면 알아서 물을 내려주는 레노크 자동 물내림 시트! 전기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절수 기능까지 있어 에너지와 물 사용량이 줄고 위생과 편리함은 커지는 미래 화장실 문화의 필수품입니다.

전기없이 사용하는 자동 물내림 모듈

공기에너지만을 이용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레노크만의 공기제어 특허기술입니다.

초간단 설치
양변기 부속 교체 없이
시트만 교체로
설치 완료

이제, 변기 레버 만지지 마세요! 레노크 무전원 자동 물내림 시트

- 자동 물내림 앞뒷면 양의 물을 자동 흡수
- 전기세 걱정 No 무전원이니 간편 교체, 전원 등의 비용 0
- 휴지타입 조절 휴지 버리는 시간을 환경에 따라 조절 대기
- 초간단 설치 양변기 부속 교체 없이 시트만 교체로 설치 완료
- 공기압 인체 감지 무게 하중에 의한 인체 감지 기능
- 무전원 자동물내림 환경위생시트 / 모델명 LN4000LS ▶

▶ 특별판매가 319,000원 ▶ 267,000원 (설치비 포함 / 카드 무이자 3개월) ▶ 제품구입 및 문의 | 온라인 [아랍비스토어](#) | 전화 080-705-4000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vs “투자 시장부터 키워야”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업계 온도차

벤처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감”
투자사 “취지 좋지만” 신중 입장… “대기업만 옥죄냐” 지적도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혁신 생태계에만 치우쳐져 있다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그동안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없었지만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선 투자를 받아 지분이 희석될 경우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를 손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복수의결권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반판을 만들겠다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 누적투자 100억 원 이상인 마지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 최대주주)
발행요건 (투자요건)	- 누적 투자 100억 원 이상인 마지막 신규 50억 원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행횟수	복수의결권은 1회에 한하여 발행 가능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으로 유치한 투자금액이 신규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등 관련 업계에서는 입장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도 쉽게 유치할 수 있단 기대감도 크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업계와 포럼이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벤처캐피탈(VC) 등 벤처투자 업계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단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캐피탈(VC) 관계

자도 “취지는 좋지만 벌써 도입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일단 벤처투자 시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나온 대책 중 중소·벤처기업이 피부로 느낄만한 대책이 있었나”며 “있는 기업보다 새로 나올 기업을 위한 정책 같다”고 평가했다.

대기업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데 ‘공정경제 3법’ 등 기업들을 옥죄는 정부의 압박은 커져만 가사. 대기업은 상법 개정

안의 ‘3% 룰’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3% 룰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 지분은 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된다”고 말했다. 전체 의결권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확보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왔다.

중소기업계도 최근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각 경제단체와 마음을 모았다.

3법 중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고소·고발이 늘어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검찰·경찰 등 수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도 커진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며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고발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코로나에 ‘5G 로밍 서비스’ 거북이걸음

SKT, 12개국 양방향 5G 로밍
을 목표 20개국에 한참 못미쳐
KT 9개국·LG U+ 6개국 ‘부진’
도쿄올림픽 연기에 지연출 중

5G 로밍 현황 (10월 기준)

SK	12개국(스위스, 중국, 핀란드, 이탈리아, 홍콩, 독일, 대만,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KT	9개국(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LG	6개국(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서비스 확대 계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5G 로밍 서비스 사업 확대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경의 빗장이 잠기면서 5G 로밍 확대를 위한 왕래 자체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글로벌 통신사들끼리 협약에 더해 통신사 직원들이 해당 국가로 넘어가 품질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SKT가 10월 현재 양방향 5G 로밍 서비스를 상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중국, 핀란드, 이탈리아, 홍콩, 독일, 대만,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이다. 지난해 SKT가 발표한 ‘2020년 5G 로밍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SKT는

스위스 쥐리히 스위스콤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0년 미국, 일본을 포함해 20개국 이상으로 5G 로밍 커버리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외생 변수에 더해 5G 상용화 상황이 나라마다 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9개국에서 양방향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5G 로밍 계획에 관해 “내부 목표는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목표는 없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통신사업자와 5G 로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중국, 이탈리아, 스웨

스,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등 6개 국가에서 양방향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 3사 모두 일본 통신사와 5G 로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라쿠네통신 등 통신 4개사에 5G 주파수 대역(3.7GHz, 4.5GHz, 28GHz) 배분을 확정했다. 올해 봄 상용화를 시작했고, KDDI는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28GHz 대역을 활용해 5G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이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인데, 현재 통신사가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은 3.5GHz뿐이다. 이 같은 주파수 차이가 있지만, 양쪽을 모두 커버하는 단말기를 소비자가 쓰면 5G 로밍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이동 3사가 일본과 5G 로밍 계약을 맺는 데 물리적인 제한은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의 5G 로밍은 도쿄 올림픽 연기로 탄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이에 일본 현지 통신사들의 5G 망 투자에도 제동이 걸렸고, 일본과의 5G 로밍을 준비했던 국내 통신사들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대민 기자 aaaa3469@

절반이 2년도 못 버티는데... 또 청년몰 지원 나선 중기부

“경험 부족 청년들에게 교육·홍보 등 사후 관리 필요”

수백억 세금을 들여 조성한 청년몰이 잇따라 폐업하거나 영입이 중단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청년몰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열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주요 내용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청년몰 당 최대 40억 원) △청년몰 활성화(최대 3억 원) 및 확장(최대 10억 원) 지원 등이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방치된 유휴 공간을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의 점포 입점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불거리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몰을 조성해 젊은 고객을 유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했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청년몰 사업으로 만들어진 점포 다수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54억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내 35개 청년몰을 조성했다. 해당 기간 입점한 점포는 총 594개지만 이 중 226개가 폐업해 올해 8월 말 기준 생존율은 59%에 불과했다.

특히 창업 후 2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청년몰 사업이 보여주지 못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 일 년 만에 문을 닫거나 공실률이 높아 청년몰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지만, 점포 확대에



전북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뉴시스

치중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이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청년몰은 △서울 경동시장 △인천 강화중앙시장 △경남 진주중앙지하도 △강원 원주중앙시장 △전북 군산공설시장 △수원 영동시장 △충북 제천중앙시장 △강원 삼척중앙시장 △강원 설악로데오상점가 △전북 진안고원시장 △전북 삼례시장 △경남 김해동상시장 △울산 신정평화시장 △제주 중앙로상점가 등에 입점해 있다.

임재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청년 상인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청년몰 가계가 분산돼서 몇 개 있는 정도로는 약하고 적극적인 홍보나 광고, 판촉을 통해 집적해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MD를 갖춰놓는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신규 점포 확대보다 조성이 완료된 청년몰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 입장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중진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40개사 선정

기업별 맞춤 교육·특화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보 부족과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거대시장이나 한국기업 비중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미연방조달시장(약 5451억 달러)의 0.27% (약 15억 달러), UN 조달시장(약 188억 달러)의 0.85% (약 1.5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에 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외조달시장

이라는 새로운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조달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협업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진공은 16일 사업에 참여할 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참여기업 모집에는 총 203개사가 신청해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부터 실제 계약달성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단계로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특화 컨설팅을 통해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조달청 G-PASS 기업 지정 사업과 연계해 목표시장별 해외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해

외인증(UL, CE, CCC 등) 획득이 필요한 기업은 KT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을 기반으로 홍보 동영상 및 전자카탈로그 등 마케팅 키트 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 해외조달 전시회 및 화상 상담회 개최를 통해 목표시장에 함께 진출할 바이어(컨소시엄 파트너)를 매칭한다. 맞춤형 입찰 정보 및 조달규정(미연방정부조달규정집 등) 전문 번역을 제공한다. 조달청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해 해외조달 프로젝트 발굴 및 입찰, 계약, 납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olf.co.kr



다시 문 연 '뷔페'... 매장 수 줄이고 고급화 승부수

애슬리, 매장 5곳 줄였어도 최고등급 '퀸즈' 25개 확대
 뷔프, 목동점 매장 이전 면적 늘려 '프리미어'로 새단장
 배달 서비스 속속 론칭 코로나 장기화 위기 극복 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뷔페들이 대형화와 프리미엄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애슬리'는 지난달을 끝으로 9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W' 타입의 강남 2호점과 부평역점, GS전주점, 홈플러스 둔산점이 폐점했고, '클래식' 타입으로는 홈플러스 구미점과 대구성서점, 신도림점, 중계점, 춘천점을 정리했다. '애슬리'는 현재 총 3가지 등급의 뷔페를 운영 중으로 200여 종의 메뉴를 선보이는 '퀸즈'와 100여 종을 서비스하는 'W', 60여 종을 취급하는 '클래식'이 있다. 주말 기준 '퀸즈'는 2만5900원, 'W'는 1만9900원, '클래식'은 1만3900원으로 '퀸즈'가 가장 프리미엄급이다. 코로나19 여

파에 점포에도 메스를 댄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총 96개던 매장을 '애슬리'는 9월 말 기준 91개로 축소했다. 대중적이며 규모가 작은 매장은 줄이는 반면 프리미엄급 대형 점포는 확대했다. 같은 기간 '클래식' 매장은 23개에서 13개로 10곳이 줄었고, 'W'는 64개에서 44개로 축소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퀸즈' 점포 수는 9개에서 34개로 크게 늘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임대 기반 매장 중 매출이 비해서 비용이 높은 비효율 점포는 정리하고 있다"면서 "작은 점포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아 보다 대형화시켜 많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J푸드빌 역시 매장 수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지난 2월 한식 뷔페인 '계절밥상' 점포는 15개였지만 9월 말 기준 운영 점포



는 9곳에 불과하다. 이중 오피스 중심 상권의 매장 4곳은 뷔페가 아닌 직장인들을 겨냥한 반상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했다. '뷔프(VIPS)'는 41개 매장 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세부적으로 변화를 줬다. 지난 8월 일산점을 해당 지역 첫 특화 점포로 트렌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다이닝을 추구하는 '테이스트 업(Taste Up)' 콘셉트로 새롭게 오픈했고, 목동점은 7월 기준 CBS 건물에서 41타워로 옮겨 매장 면적을 확대하고 고급화에 힘을 준 '뷔프 프리미어(VIPS Premier)'로 재오픈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한식 뷔페 '올반'도 지난 2월 5개던 매장이 현재 2개로 감소했고,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보노보노'도 현재 같은 기간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올반'은 지난 1월 센트럴시티점을 프리미엄급으로 다시 문 열었다. 배달 서비스를 론칭해 고객을 찾아 나선 것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 8월 뷔프 메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달에 최적화해 개발한 배달 서비스 '함 딜리버리'를 선보인

CJ푸드빌은 기존 서초, 강남 지역에서 이달부터 서울 강동과 강서,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와 인천 계양, 일산 동구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매장 전화 주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애슬리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으로 스테이크와 폭립, 파스타 등 애슬리의 대표 메뉴와 최소 8가지의 뷔페 메뉴가 세트 배달하는 '함뷔페 딜리버리' 가능 지역을 강남역과 압구정, 가산, 대구 동성로, 포항지역에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락 조정으로 총 41개 매장 중 수도권 점포 28곳의 문을 열지 않았던 CJ푸드빌의 '뷔프'는 공사 중인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을 재개했다. '계절밥상'도 9개 매장이 모두 운영된다. 신세계푸드도 '올반'과 '보노보노'도 15일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2개월 가량 문을 닫았던 '애슬리'와 '자연별곡' 등도 13일부터 다시 영업에 나섰다. 남주현 기자 jooh@

집콕족 '쟁여두기'에... 대용량 제품 다시 뜬다

750g 연어·두 배 길어진 휴지... 소포장 내놓던 기업들 용량 늘려

코로나19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주춤하는 대신 집콕족 증가로 장기 저장 목적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면서 용량을 키운 식품이나 음료가 등장하는가 하면 자주 외출하기 부담스러운 맛에 저장성이 좋은 세제,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도 판매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앞다퉈 출시하던 1~2인용 소용량 제품 대신 대용량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집에서 요리하는 집콕족이 늘어나는 데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맞춰 대용량 혼제연어를 선보였다. 혼제연어는 가정에서 샐러드, 샌드위치, 초밥 등 다양한 요리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꼽힌다. 특히 홈파티나 각종 모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팩을 750g 대용량으로

내놨다. 에스에프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배달 전문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킨푸드 '스콜푸드 마요소스 250g 대용량'을 PB상품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스콜푸드 마요소스'는 스킨푸드 대표 인기 메뉴인 '마리'를 찢어 먹는 달콤하고 고소한 특제 소스다. 이 소스는 '팬슈머(Fansumer, Fan+Consumer)'들의 끈임없는 요청으로 탄생했다. 이번 신제품은 이러한 팬슈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50g 대용량 자체 브랜드(PB)로 선보였다. 대용량 음료 판매량도 급증했다. 광동제약이 지난 8월까지 광동 헛개차의 최근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용량 제품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회사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닐슨코리아 데이터에 따르면 광동 헛개차 대용량 1l 제품의 매출은 지난 3년간 22.6%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성장률은 13%다. 광동제약은 대용량

음료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돼지감자차 등도 대용량으로 내놨다. 이른바 '쟁여두기' 쓰기 좋은 생활용품도 대용량 제품으로 소비가 기울고 있다. 피죤은 강력탈취 성분에 섬유유연제 원소 '피죤' 향을 더해 만든 대용량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을 대용량으로 선보였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두루마리 화장지 길이를 약 두 배(크리넥스 3겹 25m 대비) 늘린 '크리넥스 메가롤 클린케어' 화장지를 선보였다. 신제품은 길이 50m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화장지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대용량이다. 실제로 유한킴벌리 조사에 따르면 기존 화장지 한 롤당 사용 기간은 3.6일로, 나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사용 기간이 약 2배로 늘어남에 따라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같은 화장지양 대비 버리는 휴지심이 반으로 줄고, 대용량 포장 시 사용되는 폴리 비닐백의 양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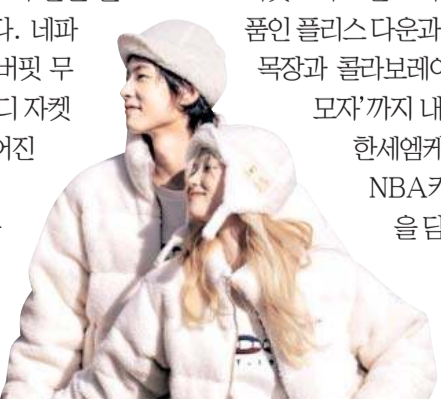
캘러리아 "이탈리아 맛보러 오세요" 캠페인 박람회장은 압구정동 명품관에서 '비바! 이탈리아'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 와인, 올리브 오일, 마켓을 투어하는 콘셉트의 이탈리아 식품 박람회장 31일까지 운영한다. 매장에서는 와인 명가 '안티노리', 가요 등 이탈리아 대표 와인 250여 종과 트러플 등 식재료 100여 종을 판매한다. 사진제공 캘러리아백화점

다양해진 '플리스'... 더 '핫'해졌네

네파, 무스탕·후디 등 라인업 확대 아이더, 양떼목장 협업 모자 출시

올 가을·겨울 시즌 '플리스'가 한층 다양해졌다. 몇 년 전부터 일명 '뽀글이'로 불리며 인기를 얻어온 플리스는 올해 아웃도어는 물론 에슬레저룩, 골프웨어까지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앞다퉈 '플리스' 소재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파, 아이더,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에 이어 NBA키즈, 와이드앵글까지 플리스를 주력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유아동복 시장과 골프웨어 시장까지 플리스 열풍이 거세다. 네파는 본격적인 플리스의 계절을 맞이해 플리스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플리스 라인업을 공개했다. 네파의 플리스 라인업에는 오버핏 무스탕 보아 자켓과 롱 후디 자켓 등 예년보다 길이가 길어진 제품도 등장했다. 네파는 전년 대비 올해 플리스군 전체 물량과 스타일을 각각 3배 늘렸다. 아이다스의 셔파

플리스는 한 쪽 면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양털 플리스, 다른 면은 폴리 자켓으로 구성해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다. 디스커버리 익스피디션의 프리미엄 테크 후리스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후드형과 하이넥형, 베스트, 롱 자켓 스타일을 선보였다. 노스페이스는 1000만 개가 넘는 페트병(500ml 기준 약 1082만개)을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선보였다.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재활용 비율을 전년보다 크게 확대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퍼럴도 100% 리사이클 원사로 만든 친환경 플리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플리스는 페플라스틱을 작게 조각내 원사로 만든 100% 리사이클 친환경 폴라텍 소재로 제작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시즌 주력 제품인 플리스 다운과 연계해 대관령 양떼목장과 콜라보레이션한 굿즈 '플리스 모자'까지 내놨다(사진). 한세엠케이의 아동복 브랜드 NBA키즈는 스포티한 감성을 담은 '인앤아웃(IN & OUT) 리버시블 플리스점퍼'를 출시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직구보다 30% 저렴" 이마트 '리맥스 노캔 헤드폰' 7만9800원 (노이즈 캔슬링)

이마트가 음향기기 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노캔(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홍콩의 샤오미로 불리는 '리맥스(REMAX)'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RB-600HB)을 7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딩은 와디즈에서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상품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배송이 시작된다. 리맥스 헤드폰은 최근 음향기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능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외부의 소리를 마이크로 감지해 그 소리의 반대 음파를 내부에서 발생시켜 외부의 소리가 차단된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마트가 선보이는 리맥스 헤드폰은 10만 원 중후반대 이상 헤드폰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소음 차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음 감소칩을 4개 탑재해 폭넓은 오디오 주파수 대역폭에서 최고 25dB까지 잡음을 소거하는 성능을 지녔다. 또한, 가장 최신의 블루투스5.0 버전을 탑재해 블루투스4.2 배터리리는 완충까지 3시간 소요되며, 최대 12시간 재생이 가능하다. 출퇴근용으로 하루 2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6일간 충전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는 가성비가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보이기 위해 국내 미출시 브랜드인 리맥스와 직접 계약해 해외 직구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리맥스 헤드폰(RB-600HB)을 직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11만 원이 들지만, 이마트는 리맥스와 직접 거래 약 30% 저렴한 7만980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이선근 이마트 해외소싱사업부 담당은 "이마트가 10년 넘게 축적한 소싱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우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상장 전에 미리 짚”… 장외시장 투자 ‘빛과 그림자’

K-OTC, 하루 평균 거래대금 51억...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SK바이오사이언스’ ‘크라프트온’ 등 예비 상장주 연일 상승세
 “거래량 적고 정보 비대칭성 심해 위험요소 커, 투자 신중해야”

회사원 정 모(32) 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로 눈을 돌렸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과 동시에 ‘따상’을 기록하는 걸 보고, 미리 사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다. 수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없는 점도 장점이다. 얼마 전 크라프트온 주식을 1주당 150만 원 선에서 사뒀는데, 호가 기준으로 벌써 수익을 보고 있다. 늦게라도 IPO 대이라면 미리 투자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공모주 광풍이 장외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장외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공모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투자자들이 상장 전에 일찌감치 주식을 사두는 전략으로 우회하

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상장하면 오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공모가 대비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 15일 박히트는 개장과 동시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다. 당시 시초가 대비 35만1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공모가 13만5000원 대비 160%에 달하는 수익률이었다. 당시 장외시장에서 미리 박히트 주식을 사두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당시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상장 직전 박히트 주가는 30만 원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0월 K-OTC 거래 통계

종목명	기간거래량(주)	기간거래대금(원)
오상헬스케어	12만8625	125억734만
아하정보통신	55만3640	122억8057만
비보존	33만5878	72억9411만
아리바이오	26만3954	38억7619만
와이디생명과학	37만1269	23억6798만
메디포럼	96만2350	22억417만
마이디스IT	2만19178	19억3077만
넷마블네오	1만6948	9억5655만
삼성메디슨	16만7230	8억7037만
SK건설	3만3185	8억4195만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6만3838	7억2513만
티맥스소프트	2만4422	7억1733만
LS전선	1만3626	5억3487만
현대아산	2만2127	3억9990만

* 출처: 금융투자협회 K-OTC

주가에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이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도 장외시장에서 상장 직전까지 최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 상

장 전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공모가(2만4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은 7만 원 후반대에서 형성됐다. 통상 장외주식은 코스닥, 코스피 상장 직전일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다. SK바이오팜의 경우, 100% SK 자회사로 장외시장에선 거래되지 않았다.

다음 기업공개 타자 몸값도 최고치를 찍고 있다. 내달 상장을 앞둔 에이플러스에셋의 장외주식 가격은 1만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모 희망가 밴드인 1만500~1만23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PO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1주당 360만 원, 크라프트온은 170만 원 등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장외주식시장 거래도 크게 늘었다. 장외주식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K-OTC나 사실 장외시장인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거래할 수 있다. 최근 증권사들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잇달아 내놓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외주식시장(K-OTC)의 올해 들어 16일 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1억4676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억8035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은 1억8053만 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1억2919만 주)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

소액으로 ‘IPO대어’를 미리 낚는 장점도 있지만, 거래량이 적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위험요소가 큰 편이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장외주식의 경우,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투자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거래 과정에서도 주식, 자금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기 가능성이 있어 K-OTC, 증권사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최태원 SK 회장 ‘서린 사옥’ 매입 나설까

우선협상자에 이지스자산운용
 3.3㎡당 3950만~4000만 원
 인수총액은 1조 원 훌쩍 넘어
 “SK, 콜옵션 행사에 가격 부담”



SK그룹이 20년 넘게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사진)에 직접 베딩에 나설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 서린빌딩의 매각자인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은 15일 우선협상자(우협)로 이지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6일 본입찰에서 평당(3.3㎡) 가격으로 3950만 원~4000만 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가액을 찍은 현대해상의 강남타워 매각가(평당 3380만 원)를 훨씬 웃도는 가격이다. 서린빌딩의 연면적(약 2만5350평)을 감안하면 인수총액은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우협이 선정됐지만,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콜옵션)을 보유한 SK(주)의 행보에 쏠려 있다. 현재 SK그룹은 SK(주) 하나대체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펀드

‘하나랜드칩사모투자신탁33호’로부터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입차하고 다시 계열사들에 재입대하는 방식으로 사옥을 이용하고 있다.

일찌감치 시장에서는 SK그룹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20년째 본사 사옥으로 활용 중인 서린빌딩을 되사들일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이번 우협 선정 과정에서 역대 최고 매각가가 나오면서 업계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SK그룹은 2005년 SK인전석유화학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린빌딩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에 매각해 다시 입차하는 ‘세일앤리스백’을 결정했다. 당시 매각가는 4400억 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SK 측은 건물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했다. 이후 BoA가 2011년 하나대체운용에 빌딩을 매각하면서 건물 주인은 바뀌었지만, 콜옵션은 그대로 유지됐다. SK(주)가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통상 콜옵션 행사 기한은 한 달 정도다. 이 기한 내에 SK그룹은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린빌딩이 SK그룹의 상징인 만큼 최태원 회장의 의중이 관건일 것”이라면서 “최근 주요 기업들이 직접 사옥을 소유하기보다는 유동화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나 리츠(REITs), 운용사 등 제3자를 지정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우협이 제시한 가격 수준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우협이 제시한 인수총액 1조 원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SK(주)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황준호(왼쪽 일곱 번째) KTB투자증권 그룹전략부문 대표와 김진형(왼쪽 두 번째)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이 15일 열린 KTB벤처챌린지2020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B그룹, 대학생 스타트업에 5년간 10억 지원

‘KTB 벤처 챌린지2020’ 개최

KTB그룹은 15일 오후 서울에서 KTB Venture Challenge 2020(KTB 벤처 챌린지2020)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 대학(원)생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이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해 연간 2억 원 규모로 총 5년간 1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75개 대학 총 228팀이 지원했고, 서류와 발표심사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10팀이 선발됐다. KTB그룹은 대상 1팀(2000만 원), 최우수 2팀(각 1500만 원) 등 10팀에게 사업화 자금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또 우수 2팀은 SVI내 사무실 입주 혜택도 받는다.

대상에는 대체식품 디저트를 개발한 조인연조인팀이 수상했다. 또 AI 기반 신약 임상시험 정보서비스를 개발한 미디어이플러스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닥터가이드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황준호 KTB투자증권 그룹전략부문 대표,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과 업계 벤처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를 맡았다.

이병철 KTB그룹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KTB 벤처 챌린지가 청년 창업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강원랜드 희망재단 “폐광지역 소상공인에 희망을”

정선·태백 등 숙박업소·음식점
 재개장 컨설팅 등 자생력 지원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태·영·삼맛캐다’ 9호점 재개장식.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강원도 폐광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강원랜드는 지역의 소상공인 회생 프로젝트인 ‘정·태·영·삼맛캐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맛캐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성업 중인 곳은 총 14곳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희망재단의 지원업체 모집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인 정선·태백·영

월·삼척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자생력을 갖추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희망재단은 상권과 주변 입지, 점주 역량을 분석해 재개장 컨설팅 계획을 세우고 점주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또 강원랜드 호텔 조리팀의 레시피 재능기부와 위생교육, 전문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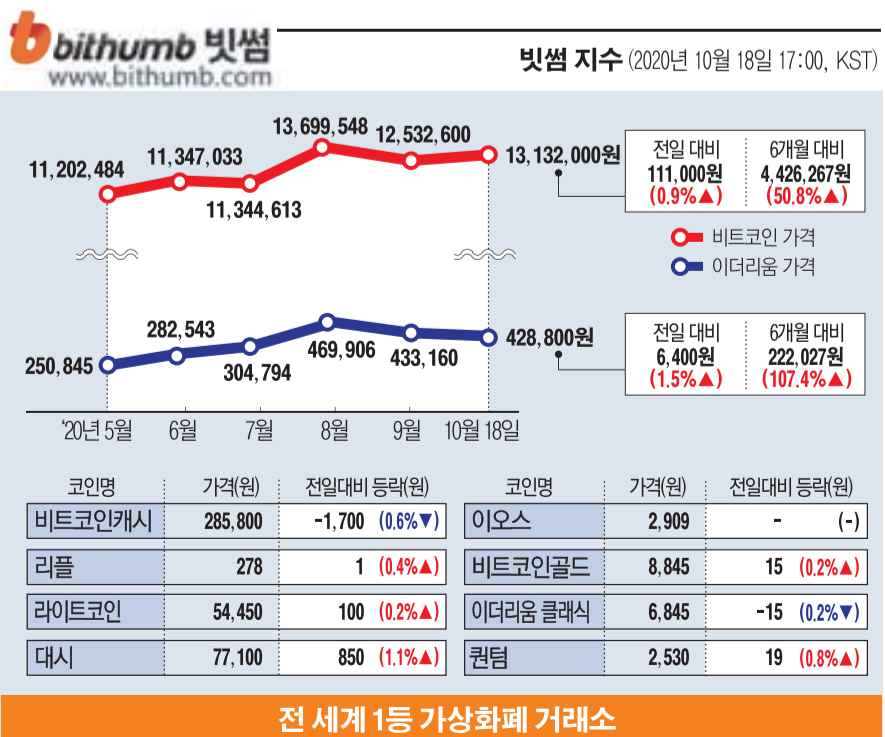
리어의 서비스 교육과 회계전문가의 회계원리 교육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강원랜드 건설관리팀은 식당 내부 인테리어 등을 통해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현재 ‘맛캐다’ 1호점부터 14호점까지 희망재단 지원 식당 모두 이전 영업 매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은 폐광지역의 노인과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올해 정선 등 4개 시군의 어르신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명품 숲길 형성, 좋은마을 만들기 기반조성, 생태계유지관리, 생활편의 지원 등의 일자리를 얻어 실질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자녀 많으면 '신혼 특공'·무자녀 '생애최초' 유리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폭 완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A(36) 씨는 신혼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어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매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A 씨는 정부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내년부터 연봉 1억 원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다. A 씨는 일단 빌라 월세나 전세로 지낸 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본격적으로 노릴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이 120%(130%)다. 이 중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160%)까지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9456만 원, 1억668만 원이다. 연봉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가진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해졌다.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뉘는데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 일반공급은 160%까지 완화됐다.

전세난에 低가점 40代 이하 무주택자 특공 노력할 만 혼인前 부부 중 한 명 주택 처분했어도 자격서 제외돼 청약 기회 확대됐지만 공급물량 적어 '희망고문' 우려도

이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묻는 예비 청약자들이 부쩍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시장은 전세·매매 막론하고 가격이 높은 데다, 일반분양은 가점 장벽이 너무 높아 가점이 낮은 40대 이하 무주택자들은 소득기준이 완화된 특별공급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혼인 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부적격 당첨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신혼부부는 생애최초를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부부 중 한 쪽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 신고 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부부 모두 없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했어도 자격에서 제외된다. 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3인 이하 기준	
공공	현행	개정		100%	555.5만
		물량	소득기준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130%	722.2만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	우선(75%) 100% 이하(맞벌이 120%) 일반(25%) 120% 이하(맞벌이 130%)	우선(70%)	100%(맞벌이 120%)	140%	788만
		일반(30%)	134%(맞벌이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공공분양	현행	개정	
		공공분양	민영
공공분양	100%	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	130%	우선(70%)	130%
		일반(30%)	160%

※출처: 국토교통부

'제3 판교' 성남 금토지구 LH, 뉴딜 신도시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를 '한국판 뉴딜' 시범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업체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논의에 착수, 뉴딜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기안(假案)을 만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월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을 마무리한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이다. 건물 등에 주로 적용된 개념이지만 최근엔 도시로도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58만 2961㎡에 걸쳐 있는 금토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중형 택지다. 2024~2025년까지 3255가구(8205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완성하는 게 국토교통부와 LH 목표다.

LH는 올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지구계획이 나오면 뉴딜 신도시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모빌리티·제로 에너지도시 조성 검토 올해 지구계획 확정되면 신도시 사업도 윤곽

라고 말했다. LH는 아직 국토부나 경기도, 성남시 등과는 정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이 금토지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LH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제로 에너지 도시라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각 한국판 뉴딜 양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친환경) 뉴딜을 대변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교통 수단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결합한 개념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신규 택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차량 공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노리고 있다. 제로 에너지는 에너지

로 보인다. 금토지구는 공공택지 후보지로 올랐을 때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여 평가 받았다. ICT 산업 중심지인 성남 분당구 판교신도시와 맞닿은 입지 장점 덕분이다. LH측은 "주변 판교 등 입지 장점을 고려해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2017년 금토지구를 스마트시티(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만든 도시 플랫폼)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도 금토지구 제3판교테크노벨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2월 분양

수원 원도심에 조성...1063가구

한화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는 12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안구 파장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번 단

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1063가구(전용면적 64~84㎡)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64㎡A 157가구 △64㎡B 165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로 구성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옛 국제공무원교육

원 부지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수원 원도심에 지어지는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라며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견본주택은 12월 중 홍보관 인근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10월 넷째 주엔 전국에서 7000여 가구도 분양시장에 나온다.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잇따라 청약자를 맞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20개 단지, 7051가구(일반분양 3825가구)가 분양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와 강동

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청약 경쟁이 어느 곳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4개 단지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 오피스텔과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 현진에버빌',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 등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을 받는 곳은 16곳이다. 서울 용

산구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역세권 청년주택,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한신 더휴', 충남 천안시 신방동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14개 단지에서 견본주택 문을 연다. 청약자 사이에선 22일 일제히 문을 여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등 지식정보타운 3층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0/19 (월)	접수	경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10/25)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 1순위(당해지역)
				고양시 원흥동	고양삼송A24(행복주택) (~10/28)
			부산	수원시 서둔동	해센스마트하이브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8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10/28)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A34(행복주택) (~10/28)
	발표	경기	서울	기장군 기장읍	부산기장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10/28)
				연제구 연산동	부산연산2(행복주택) (~10/28)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현진에버빌
			대구	서구 동인동1기	센트럴대원컨트리빌
				안양시 비산동	비산한신더휴 (~10/21)
				양평군 양평읍	포레나양평 (~10/21)
10/20 (화)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 1순위(기타지역)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A3-3a(공공분양) 1순위(~10/21)	
			대전 유성구 원신동	감천1트리플시티힐스테이트 1순위(당해지역)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삼송A11-2(행복주택)	
			지축동	고양지축A4(행복주택)	
			양평군 양평읍	양평가뮈스테이트	
10/21 (수)	접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 1순위(당해지역)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 2순위	
			대전 유성구 원신동	감천1트리플시티힐스테이트 1순위(기타지역)	
		경기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베르디움프렌즈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역웰리지라테라스 (~10/23)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송내S1(행복주택) (~10/23)	
10/24 (토)	발표	경기	부천시 명지동	부산명지(행복주택) (~10/23)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역웰리지라테라스 (~10/23)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송내S1(행복주택) (~10/23)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행복주택) (~10/23)	
			부산시 서구	서구동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11/7)	
			부산시 서구	서구동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11/7)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檢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기소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민주당 9명·국민의힘 11명 등 2874명 입건 20대보다 9.5% ↓ 野 4명 무효판 개헌저지선 붕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조수진·이재익·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33명이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7명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2874명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되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0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은 인지 수사료 입건됐다.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흑색·불법선

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 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리당원 불법 모집(당비 대납) △당원 정보유출, 선거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전화홍보팀을 이용한 불법경선 운동 등이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폭력과 방해 사범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립적 정치 환경,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20대 27명→21대 50명)하거나 연설을 방해(20대 9명→21대 75명)하는 등의 범죄가 급증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김중용 기자 deep@



44년 만의 가족 상봉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이응순(오른쪽) 씨가 큰딸 윤상희 씨와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윤상희(미국명 테니스 맥카티) 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한 첫 사례다. 상에 씨는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연합뉴스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이번주 재판 시작

민원 시달리다 목숨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재판부 “장기간 괴롭힘이 원인”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한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

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유족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인 사이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증간 소송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주인의 지속적·반

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인 B 씨가 A 씨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B 씨는 입주 후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수시로 증간 소송 문제를 제기하고 악성 민원으로 A 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공개된 장소에서 A 씨에게 1시간 동안 폭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수천 기자 int1000@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와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

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공판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26일 재개된다. 김중용 기자 deep@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월호 발매

COVER STORY
코로나블루, 플랜테리어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다

PART1. 반려식물과 살아가기 코로나블루, “식물을 처방합니다”
PART2. 마음을 치유하는 홈가드닝 화분 가꿨더니 마음에도 봄이 났네
PART3. 집 안에서 즐기는 열대림 가성민림 열대숲을 매력 탐구
PART4. 플랜테리어 A to Z 녹색손을 향한 궁금증 10가지
PART5. 언택트 시대 식물 키우기 눈높이부터 상담까지 휴대용 하나면 끝

더불어 숲 하얗다면 왜 정자나무 아래에서?

고수 열전
스리랑카가 나의 모든 걸 흔들어놓았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떠도는 여행만큼 즐거운 게 다시 있을까 생활의 골짜기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모차렐 내용 없는 마음으로 풍경과 풍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의 관대함 도취할 수밖에 없는 우연한 이벤트들과의 만남. 다채로운 비일상적 낭만의 향유와 감성 충전이 가능한 게 여행이다. 그러기에 흔하디 흔한 나를 위로해 주는 의도를 가지고 여행을 즐긴다. 스리랑카주의자 고산정(48)은 좀 다르다. 그는 여행으로 삶을 통해 뒤집었다. 종전의 관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니 반전이지 반(反)이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멋진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애쓰는 달고 심은 진짜 어른 자성권 차이나다 대표가 개척하는 그레이트 그레이트의 매력

인류를 향한 애정이 마냥새 발호에 닿다 두 개의 왕 왕자님 흥영대 박사, 두중 김지우선군으로 새로운 ‘승무수’

모르고 살기도 괜찮아, 실이 나를 살게 하니 정재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김혜영의 느린 여행
싸목싸목 떠나는 나주식당 여행
비밀이 숨겨져 있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건 인치상정만기보다. 지인들과 서울 공감 맛집 정보를 공유하다 멀리 나주곰탕 이야기로 흘렀다. 골목 군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주곰탕, 돼지국밥처럼 향토색 강한 음식은 타지역에서 먹으면 웬지 그 맛이 안 난다. 곰탕 먹으니 나주에 갈 거라는 내 맘에 지인들이 손가락을 얹었다. “나주곰탕 포장 부탁해” 맑은 이레도 그들도 인다. 나주곰탕은 나주에서 먹어야 재밌는 것.

심심오오 50+ 커뮤니티 따뜻한 마음 포착 훈훈한 보람 철학
같은 것을 딱딱이라도 어떤 사건에는 그 순간의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피사체를 향한 사진가의 진심과 애정이 깃들었기 때문일 테다. 그렇게 온기 마린 사진으로 온정을 담아 따뜻한 사진을 찍는 이들이 있다. 바로 ‘피사모’ 커뮤니티.

엄마가 엄마에게
피로 해소와 노안에 좋은 어패류와 녹황색 채소 레시피

영사 명작 돌아보기
골골재에 갈려버린 최치원의 꿈 “한 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job을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개인 생각 배제하고 시장 흐름 따라가는 게 중요”

랩 히트상품 ‘미다스의 손’...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

순수 운용금액 10조 이상...시장 바뀌면 상품도 과감히 이동
공모·사모펀드 결점 보완 ‘랩어카운트’ 앞으로 확장성 있어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금융)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금융상품인 ‘랩어카운트(일일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자로 꼽히는 증권사다. 특히 권장진(사진) 랩운용실장은 중국 1등주랩과 글로벌4차산업1등주랩, 고배당금융테크랩 시리즈 등 다수의 랩 히트 상품을 기획·운영한 ‘미다스의 손’이다.

권 실장은 하나금융투자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 시절 입사해 세일즈&트레이딩(S&T) 부문과 랩운용실 등에서 근무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운용했었고 랩운용실이 주식랩운용실과 채권랩운용실로 분리돼 있던 시절에는 채권운용실장 맡았었다. 오랜 기간 고객들의 랩운용을 담당해 온 그는 하나금융투자 랩상품만의 장점에 대해 “대한투자신탁 때부터 쌓아온 자산관리 노하우와 주식은 섹터별, 채권은 파트별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랩 운용규모는 외부 위탁운용을 제외한 순수 운용금액이 10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채권랩은 시장점유율 1위로 9조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식형 랩은 1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권 실장이 기획한 랩상품 중 ‘중국 1등주랩’과 ‘글로벌4차산업 1등주랩’은 각각 180%, 130%의 누적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올해 3월과 8월에 출시된 ‘하나 고배당금융테크랩’과 ‘하나 고배당금융테크랩 V2’는 랩상품 중 최단 기간에 단일상품 누적 판매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

연이은 히트 랩상품을 탄생시키며 ‘미다스의 손’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운용 원칙은 무엇일까. 권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의 변



화 흐름에 따라가는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과감하게 새로운 흐름의 상품으로 바꾸고 옮겨나갈 수 있게끔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의 흐름에서 중요 투자처로 미국과 중국, 4차 산업을 꼽았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자산시장의 50%를 미국

이,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중요하다”며 “또한 올해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랩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모펀드는 투명성의 문제로 무너지면서 위축됐고 공모펀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장점이 있지만 인덱스도 못따라가는 펀드들이 많아지면서 위축됐다”면서 “공모펀드의 대안이자 직접투자보다 편리하고 사모펀드처럼 개별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한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해줄 수 있는 랩은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실장은 자신의 랩상품들이 고객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랄까. 그는 “랩상품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리스크는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나금융 랩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상품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아모레 서경배 회장 장녀 민정 씨 오늘 보광창업투자 장관과 결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민정(29·사진)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정환(35) 씨가 19일 결혼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결혼식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친인척 초대 없이 양가 직계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6월 27일 열린 약혼식에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중앙일보 발행인, 홍석조 BGF그룹 회장,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회장은 홍라희 전 관장과 홍석현 전 회장, 홍석조 회장의 동생이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서민정 씨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그룹 전략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홍정환 씨는 보광창업투자에서 투자심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지 기자 heyji@

롯데홈쇼핑 ‘지속가능성대회’서 홈쇼핑 부문 1위·최고경영자상



롯데홈쇼핑은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홈쇼핑 부문 우수기업 1위 및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롯데홈쇼핑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홈쇼핑 부문 우수기업 1위를 수상했다. ‘동반성장 컨퍼런스’, ‘상생 간담회’, ‘경력단절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롯데홈쇼핑이 운영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사회적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이완신(사진 가운데) 대표도 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상을 함께 수상했다. 특히, 이 대표가 수상한 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상은 한국표준협회가 올바른 ‘기업인상(象)’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했다. 지속가능경영에 힘쓴 기업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CEO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대표는 조직구성원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상호 발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효주,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



김효주(25)가 1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탠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김효주는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하며 6년 만에 삼금왕 등극의 기회도 잡았다.

삼성SDI, 코로나19 백일장으로 ‘마음 방역’

비대면 자작 시·삼행시 경연에 임직원 200여명 출품

삼성SDI가 ‘코로나19’를 주제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백일장을 열었다.

삼성SDI는 최근 사내 소통 채널인 SDI talk를 통해 ‘희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작 시 및 삼행시 부문에서 비대면 백일장을 개최, 200여명의 임직원이 작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일장에 접수된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 내자는 ‘희망’ △‘일상’ 속 마스크와 소독의 중요성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등 다양한 메시지가 녹아 있었는데,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를 격려

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임직원들의 백일장 심사는 ‘꽃꽃’ 시의 나태주 시인과 고두현 시인이 진행했다.

두 시인이 이번 백일장의 자작 시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작품은 소형전자사업부장경호(사진 오른쪽) 프로의 ‘아들에게 쓰는 편지’였다. 이 수상작은 코로나19로 인해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진솔하게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또 ‘코로나’ 삼행시 부문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소형전자사업부 김현선(왼쪽) 프로의 작품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재치 있게 풀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희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 내는 임직원들의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를 다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최지만, 한국인 타자 최초 WS 무대 선다

탬파베이, ALCS 7차전서 휴스턴 꺾어 ...5경기 나서 타율 0.385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한국인 타자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무대에 선다.

탬파베이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7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 4-2로 제압했다. 탬파베이는 ALCS 1~3차전 승리 후 3연패해 최종전으로 끌려갔지만, 7차전에서 승리하며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1998년 창단한 탬파베이는 역대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탬파베이 1루수 최지만은 한국인 역대 4번째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타자로서는 한국인 최초다. 앞서 2001년 김병현(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09년 박찬호(필라델피아 필리스), 2018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는 모두 투수였다. 최지만은 김병현을 이어 한국인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노린다.

최지만은 이날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이번 챔피언십 7차전 중 5경기에 출전해 13타수 5안타(타율 0.385) 1홈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오른쪽)이 18일(한국시간)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 4-2로 꺾고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후 우승컵인 윌리엄 해리지 트로피를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런 4볼넷 1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탬파베이의 월드시리즈 상대는 19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7차전에서 정해진다. 이날 NLCS 6차전에서는 다저스가 워커 블러의 역투로 애틀랜타 브

레이브스를 3-1로 꺾으면서 시리즈 전적 3승 3패 균형을 맞췄다. 다저스와 애틀랜타 중 19일 7차전 승자가 탬파베이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두고 맞대결한다.

연합뉴스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안전환경정책관 유희중 △4·16세월호참사피해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정일환 △소통지원비서관 권해린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과천청사관리소장 조옥형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장문수 ◇과장급 전보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태익 △공공서비스혁신과장 고은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조아라
- ◆보건복지부 ◇국장급 △건강정책과장

- 이스란 ◇과장급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김우중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박순현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최홍석
- ◆환경부 ◇국장급 전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신선경
- ◆국토교통부 ◇전보 △부산지방항공청장 이상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상수 △항공안전정책과장 유경수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정규삼 △디지털소통팀장 김현성 △해운정책과장 서정호 △부산

- 지방해양수산청 향만물류과장 이민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성준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카르텔총괄과장 문재호
- ◆관세청 ◇국장급 승진·전보 △광주세관장 김중호
- ◆금호타이어 ◇부사장 승진 △정일택 △김상엽 ◇전무 승진 △조남화 ◇상무 승진 △마상문 △진양기 △김호중 △김현수 △김기운
- ◆바이젬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경묵
- ◆YTN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

- 장 김선희 △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최종인 △마케팅국 마케팅2팀장 박기용 △보도국 기획탐사팀장 고훈석 △보도국 경제부장 최명신 △보도국 전국부장 황보연 △보도국 국제부장 김기봉 △보도국 편집2부장 홍상희 △보도제작국 제작2팀장(YTN플러스 파견해제) 윤현숙 △시청자센터 시청자에디터(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 겸직해제) 신운진 △마케팅국 마케팅기획팀 김명섭 △보도국 취재에디터(보도국 기획탐사팀장 겸직해제) 김지영 △보도국 뉴시스지원팀 임수근 △YTN플러스 디지털뉴스팀장 김잔디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고문

조만간 중국이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대국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언정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안보와 경제의 확실한 분리 접근이다.

코로나19가 공식 확인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코로나는 공장 자동화,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 증가 등 소비행태의 변화는 물론 물류, 일하는 방식,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기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 및 비숙련 노동계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세계는 덜 세계화되고, 더 디지털화되고 계층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주요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이 달라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월 10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 특집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하여 2021년 말 미국의 경제 규모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중국은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충격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함께 유럽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경기후퇴를 지속할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성과의 각각 간 차이는 국가별 방역체제와 이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속도 및 각국의 통화정책, 재정지원 등 정책적 대응, 그리고 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 문제이다. 코로나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구조는 일자리와 국민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간 패권경쟁 구도의 변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국가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각국은 제로 수준으로의 금리 인하, 재정 투입과 함께 타격받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생존 지원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도시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축소되는 반면, 소수 기술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만이 독자청정 성장을 구가하게 되면 머지않아 중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 예상된다.

다.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고속철, 핀테크, 공유경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기존의 달러자본과 결제시스템의 우위만을 무기로 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쿼드(Quad) 플러스' 가입 요청에도,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무반응 행보의 유지가 우리에게 최선의 대안일까? 생각해보자. 미국과 중국에 대해 중립을 표방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의 효과는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중립 표방은 우리에게 미·중 양국에 힘을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있을 때 효과가 있으며, 안보는 대체제가 없는 반면 경제는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발언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국수주의적 공격과 2017년의 사드 배치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경제를 빌미로 우리를 속국 취급하며 상전노릇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는 국가 간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중국이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대국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언정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안보와 경제의 확실한 분리 접근이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는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을 선택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 원칙 천명을 통해 경제 문제를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 기업 또한 기업활동의 국내 이전(reshoring)이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근거리화 및 단순화 등 코로나19에 의해 초래된 변화와 중국의 보복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안승호의 오! 마이마켓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요즘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매우 분주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KBS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인상이야기가 나돌자 새롭게 그 이유를 따져보고 싶어한다. 1960년대 시작된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되어 전기를 끊거나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국내의 수신료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자의 강제적 수신료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미국처럼 순수하게 시청자의 기부금으로, 뉴질랜드처럼 광고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와 같은 경우 세금과 광고로 운영한다. 따라서 반드시 수신료 징수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 혹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본 KBS 수신료

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신료를 다시 따져보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급업자로서 KBS의 역할과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60년대에는 한 TV 제조사의 광고처럼 한 동네에 TV가 한 대인 경우가 많았다. 또 방송 3사만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니 TV 보유는 곧 KBS 시청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한 가구에 다수의 TV가 존재하게 된 80년대부터 TV 보유는 TV 시청과 별개가 되었으며 이후가 구당 징수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에는 수많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존재하며 KBS마저도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요사이엔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밖의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정말 다양한 뉴스, 드라마, 영화, 쇼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며 KBS 프로그램이 사라진들 별다른 불편이 없다는 소비자들도 매우 많다. 방송의 공익성 때문에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하나 공익성 자체가 오락성만큼이나 소비자의 채널 선택 기준의 하나일 뿐, 더도 덜도 아니다. 아니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청하지 않으면 공익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BS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타 방송국이나 신문을 비판하며 KBS의 비교우위를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제공업체는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때 시청료가 수신료로 전환되었던 이 제 수신료는 시청료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이다. 즉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 시간에서 KBS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청료 책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2500원을 만 원 단위로 올린다면 케이블 채널 구성에서 KBS 채널의 포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물어야 한다. 한때 IPTV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지상파 채널이 빠질 수 있다는 엄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특정 채널은 제거될 수도 있다. KBS 공적 과업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방송의 디지털화는 사업자인 KBS가 책임지는 영역이지 시청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무슨 자격으로 사업에 나서는지 소비자는 의아스러울 뿐이다.

일제강점기 라디오에 부과된 수신료 제도를 TV에 적용한 결과이니 이참에 일제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도 재검토할 만하다. EBS나 교육방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과금되는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자녀를 둔 소비자가 부담하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시청하지 않는 해외방송이나 영어방송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니 정부의 세금으로, 그리고 해외의 한류 콘텐츠 방송은 수혜자인 각종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상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굳이 지키려는 각종 규제는 혁신적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과감히 완화되어야 한다.

논의를 정리하면 시청료 인상은 가능하지만 그전에 채널 선택권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이다. 그래야 공공성 확보나 경영 합리화에 있어 KBS가 남다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너선 스위프트 명언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지만, 말벌 같은 큰 놈은 빠져나간다."

영국계 아일랜드 출신 작가, 성직자. 정치 권력층의 부패와 탐욕,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작품 '걸리버 여행기'를 비롯해 '통 이야기', '책의 전쟁' 등 걸작을 남겼다. 미 허버드 법대 법면에 걸린 그의 명언.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667~1745.

☆ 고사성어 / 천망회회(天網恢恢)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영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는 말. 노자(老子) 73장 임위편(任爲篇)에 나온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해주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편안한 태도로 잘 꾸민다. 하늘의 법망은 큼직큼직하여 소홀해 보이지만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失]."

☆ 시사신식/넛지 효과(nudge effect)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해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끄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납자 소변기 중앙에 그린 파리 그림이 대표적인 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양이 80%나 줄었다.

☆ 우리말 유래 / 짝하다 '좋지 않은 일로 남에게 주목받는다'는 뜻. 엉덩이에 볼로 달군 쇠꼬챙이로 지져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표시하는 걸 낙인(烙印)이라고 한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말. 낙인은 빠지고 그냥 '짝하다'라고 쓰인다.

☆ 유머 / 의식주(衣食住) 언쟁 조리사와 디자이너의 언쟁. 둘은 서로 자기 일이 더 중요하며 한자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리사가 "먹는 게 우선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라며 '식의주(食衣住)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디자이너가 한마디하자 언쟁은 그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웃을 입어야 먹든지 말든지 하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EV) 화재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될까 무섭습니다. 화재 원인이 배터릴 가능성은 제기됐는데 배터리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선부르게 주범으로 규정해버렸네요."

배터리 업계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ESS 화재 사고의 악몽이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ESS에서는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장기간의 조사에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결국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배터리 업계는 즉각 "배터리는 이번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며 ESS 화재 원인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기업의 소명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일축해 버렸다. 결국 해외 ESS 시장의 고속 성장에도 국내 시장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내 ESS 설치 용량은 2018년 5.6GWh에서 2019년 3.7GWh로 줄었고, 이로 인해 기

업들도 이 부분 실적을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현대차 전기차 코나의 화재 원인으로 또다시 배터리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코나에 시정 조치(리콜)를 명령하며 배터리 셀이 원인

기자수첩



김유진 산업부/eugene@

전기차 화재, 제2 ESS 사태 되지 않게

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즉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도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설정값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운행 중 비틀릴 수 있는 관리 결함 등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화살을 배터리로 돌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화재의 피해를 소비자가 입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다만, ESS 사태에서 배웠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야 관련 산업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원인 조사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질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자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아 민생과 국익은 뒷전이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뇌물을 준 사람은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검찰 수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 주기'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온다. '정치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정치권의 단골멘트다.

각종 권력 비리 의혹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 규모도 광범위하다.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사는 피해자도 많다.

얼마 전 집안의 한 어른으로부터 십수년간 짊어져 오던 빚을 다 청산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며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냥 연락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업 사기사건 피해자였다. 사건 발생 후 고금리 이자로도 저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약 15년 만에 빚을 갚았지만, 몸과 마음은 파헤쳐졌다고 한다.

당시 필자는 다단계 투자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제이유 사업에 투자하는 법조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바보들이냐"며 "그들이 출연한 영상

을 한번 보라"며 오히려 투자를 권유했다. "유명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언론도 홍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상위 직급에 올라가는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 "밤새워 공부해 변호사나 대학교수도 떨어지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좋아했다.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이 구속됐을 때는 "정치 탄압"이라며 곧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믿음에는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장군, 연예인 등이 제이유가 파는 물건이 좋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이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그들도 피해자라든가, 단지 지인 소개로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는 말로 법망을 피해 갔다. 이들 사회지도층을 신뢰한 피해자만 기나긴 빛의 굴레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최소한 이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회지도층은 없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맹탕-정쟁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민생-정책 국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감 초기 청와대-정부-여당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이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에서 야권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정쟁의 반전 카드로 삼고 있다.

이번 국감도 여야 모두 약속했던 정책 국감이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국감'으로 기록에 남을 것 같다. 이왕 '라임·옵티머스 국감'으로 변질된 이상 '스타 의원'이라도 나타나 시원하게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쳐 주길 바란다. 피해자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면 좋겠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되려면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수사 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정치권의 말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니 검찰도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사회지도층은 본인도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피해자들 상당수는 사회지도층이 이들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홍보를 믿고 투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lawsdm@

사설

최악 고용절벽, 코로나 탓 말고 기업에서 해법을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나 높아졌다. 외환위기 때인 2000년 9월(4.0%)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9월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13.1%) 늘었다. 심각한 문제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별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인구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9월 '쉬었음' 인구가 24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8000명(13.6%)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구직단념자도 64만5000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게다가 통계적으로 취업자인데 실제로는 실업자인 '일시 휴직자'도 9월 78만9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갑절이 늘어나 1982년 이래 가장 많다. 이들은 직장의 조업중단 등으로 잠시 일을 쉬는 상태이지만, 6개월 이후 복귀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전락한다. '실업대란'의 뇌관이다.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9월에도 60세 이상(41만9000명) 말고, 모든 연령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15~

29세 청년층은 -21만8000명, 30대 -28만4000명, 40대 -17만6000명, 50대 -13만3000명이었다. 주력생산계층 취업은 감소하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드는 노인일자리로 고용 숫자를 지탱하는 형국이다. 생산계층 일자리의 숫자는 외환위기 때인 20여년 전보다 더 나쁘고, 고용의 질도 엉망이다.

정부는 10월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돼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달 말부터 국민들에게 외식·전시·관광·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도 배포한다. 11월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금 고용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고용시장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고용 주체인 기업활력의 쇠퇴로 한국 경제가 안으로부터 썩아 들어가는 구조적 위기가 고용절벽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고용을 떠받치는 것은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 민간기업이 계속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과 경기 후퇴로 이어진다. 코로나를 탓하고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말고,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선영의 썰



부동산부 차장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세난

세 난민이 될 처지라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앞세웠던 '서민주거안정'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간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전세 시장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법. 정부는 집값의 절반 이상 대출을 받아 수 십채의 집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투기꾼들이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고 봤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들을 규제해 실제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도 큰 그림에서는 맞다.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일 수 없고, 주택으로 얻은 시세 차익 역시 모두 불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지역의 매맷값만을 잡는다고 시장 전체가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편향된 인식은 정책 부작용을 불러왔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거주요건과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파트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하자 전세시장의 공급 줄기가 막히면서 전세 불안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설익은 임대차법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유례없는 전세난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예고에 시장은 벌써 겁(?)을 먹고 있다.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이 표준임대료 도입 혹은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인상을 5% 제한,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등이다.

임대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세입자들마저 임대차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moon@

미리 보는 한 주 中 3분기 GDP 발표...-6.8%→3.2%→?

이번 주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막바지로 접어들어 국정감사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23일(목~금)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7~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여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만큼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21일(수)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2019년 기업경영분석자

료를 공개한다. 앞서 한은이 6월 내놓은 외감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화)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해의 이벤트로는 19일(월) 나을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치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원인으로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취했던 중국은 3월 중순부터 진정세로 접어들자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분기 -6.8%(전년 동기 대비)로 분기 GDP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나타낸 경제성장률이 2분기 3.2% 증가로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증권일보는 3분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최저 4.4%에서 최대 7%까지 다양한 가운데 평균은 5.3%로 나타났다. 2분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인 중국이 3분기에도 양호한 지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선 폭이 어느 정도 일지가 시장의 관심이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반가워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드디어 이사하는 날
집이 어떤 구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공간에 딱 맞는
그랑데시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시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시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 의류케어 톱큰혜택 2020.10.1 - 2020.10.31

삼성 그랑데^시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동시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포인트/캐시백)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무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시)은 읍인원 컨트를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블랙(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상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